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이 없으면 오만함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7월 18일)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불교성전’ e북 출시 수지독송 확산 기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해 2월 조계종 첫 종단본 〈불교성전〉 출간 후 법공양 불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불자들이 쉽게 수지독송 할 수 있는 전자책(이하 e북) 형태의 불교성전이 출시됐다.

조계종 출판사(대표 남배현)는 8월 9일 〈불교성전〉 e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교성전〉 e북 출시는 불교성전 편찬 당시부터 기획된 사업으로 약 1개월간 제작기간을 거쳤다. 현재 온라인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리디북스 등 서점 플랫폼에서 구입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e북 형태로 된 〈불교성전〉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종이로 된 〈불교성전〉은 불교경전 핵심을 최대한 추렸지만 어쩔 수 없이 총 704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넷 서점서 구입 가능
스마트폰·태블릿서 활용
종이책 부피 등 단점적고
보관·음성 지원 등 장점

부피를 자랑했다. 보급 후 불자대중들 사이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교성전〉을 수지독송 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남배현 조계종출판사 대표는 “장소 제한 등이 사라져 접근성이 편하고 좋은 것이 장점”이라며 “스마트폰, 태블릿을 비롯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성전을 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e북 출시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가능한 불교성전 오디오북 제작도 진행 중이다. 스님들이 성우로 참여하여 〈불교성전〉을 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북의 가장 큰 장점은 글을 읽기 힘든 상황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TTS(Text-to-Speech) 서비스다. 텍스트화된 e북의 경우 TTS 기능을 활성화하면 인공지능이 내용을 읽어준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차량 운전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요긴하다.

구입 후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원기기에서 읽을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한 점도 장점이다. PC를 활용해 키워드 검색, 용어 검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힌다.

e북의 이 같은 장점에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종이책 콘텐츠의 e북 전환을 해왔다. 조계종 포교원은 2018년부터 그동안 종이로 발행되던 〈법회와 설법〉을 e북 형태로 제작해 매월 1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요 학술단체와 잡지들이 e북 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4월부터 성철 스님 관련 콘텐츠를 e북으로 제공한다. 월간 〈고경〉과 성철사상연구원 학술지 〈퇴옹학보〉를 모바일 연동 사이트에 게재하고 e북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불교계 대표 잡지인 〈불교평론〉 또한 계간지로 발행해 온 잡지를 모두 전자책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무료 공개했다. 인터넷 불교뉴스 사이트 e붓다는 각 사찰 사보들을 e북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e북 구입 뿐만 아니라 서적을 대여하는 불교계 기관도 눈길을 끈다.

동국대와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등은 도서관 사이트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대출증 이용자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자책 대여서비스를 지원한다. 1인당 10권, 10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각 도서관 사이트에 가입하면 이용 가능하다. 〈육조단경〉 〈유식삼십송〉 등을 e북으로 볼 수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전통적인 종이책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아직 e북 분야가 불교계에서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불교성전〉의 역할을 생각하면 e북 출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이번 〈불교성전〉 e북 출시를 계기로 법공양 불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사찰 법회 활용 등에서는 종이책이 장점이 많지만, 일반불자들의 수지독송 측면에서는 e북의 장점이 크다”며 “e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장애인용 불교성전이나 오디오북과 같이 〈불교성전〉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불자들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향후 법공양 불사의 폭을 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코로나 시대, 이젠 학위 수여도 찾아갑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8월 19일 2021년도 가을 학위수여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동국대의 이번 학위수여식은 100% 사전녹화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을 동국대 유튜브 공식계정을 상영하며 진행됐다. 특히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선별된 5명의 졸업생에게 진행된 ‘찾아가는 학위 수여식’은 눈길을 끌었다. 윤성이 총장 등은 2일 동안 졸업생이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 학위를 수여했다. 사진은 7학기만에 조기 졸업한 박민혜 봉은사 종무원에게 윤성이 총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모습이다. 봉은사 주지 원경 스님도 참석해 함께 축하하고 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제공=동국대 소통홍보팀**

금강산 옛 사찰 순례길 복원 나선다

민추본·고성군, 9월 14일 업무협약 예정

민통선내의 폐사지 조제암 등
고찰 복원·문화재 보수 연계
8월말 지표조사·10월 세미나
지속 가능한 남북평화 추진에
새로운 협력모델로서도 ‘주목’

최근 남북정부간 통신연락선이 복원과 단절을 거듭하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그간 전통문화에 기반한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간 교두보 역할을 해왔던 불교계 역시 근래에는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의 공식적인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예측불가능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목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8월 19일 ‘금강산 옛 순례길 복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고성군과 공동으로 옛 스님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금강산 순례길을 발굴, 복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순례길 복원 뿐 아니라 민통선 내 폐사지를 조사, 발굴해 복원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어, 남북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사업으로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민추본과 고성군은 9월 14일 고성군과 금강산 순례길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고성군수 집무실에서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민추본은 금강산 옛 순례길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고성군(군수 함명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고성 건봉사(주지 현담)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김용현) 등 유관기관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현지답사 및 조사에 나섰으며, 문헌기록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8월 말경 고성군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제암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산 옛길 및 조제암의 복원가치와 남북교류 활용방안’을 주제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해당 세미나는 봉은사(주지 원명)의 후원으로 열린다.

금강산 순례길 복원은 단순히 남과 북을 잇는 옛길 복원의 의미를 넘어,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남측 순례길과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학술·현장조사를 통한 복원 토대를 구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북측과의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8월 지표조사에 이어 고성 통일전망대와 연계한 조제암터 성지순례도 계획 중이며, 고성군을 시작으로 남북접경지역의 여러 지자체와도 추가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민추본 관계자는 “금강산 옛 순례길이 남북을 연결하는 또 다른 길이자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소길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 순례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종정예하 부단한 정진 당부

8월 22일 하안거 해제법어

신축년 하안거 기간 중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용맹정진에 나선 수좌들이 8월 22일 해제일을 맞아 일제히 산문을 나섰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대종사는 “화두를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여 일념(一念)이 지속되도록 정진(精進)하고 또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진제 대종사는 하안거 결제법어를 통해 ‘금생에 기필코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간절한 각오로 화두를 참구하면 누구라도 진리(眞理)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신축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의하면 올 하안거에는 전국 97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1곳)에서 총1883명(총림 248명, 비구 1045명, 비구니 590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 됐다.

〈종정·방장 해제법어 6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

미얀마 지원·협동조합 설립…대사회 영역 확대

광폭 행보 나선 전국비구니회 '눈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7월 20일 창립 총회 열고
'푸르니 협동조합' 설립해
미얀마 위한 지원활동도
8월 28일 평화 기원법회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지난 7월 20일 '푸르니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최초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대사회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제12대 집행부 출범 이후 1년여간 내부 운영규칙과 법령 제개정을 통한 공적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실 강화에 주력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 결집을 토대로 대사회적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푸르니 협동조합 설립과 국제사회 이슈 대응, 환경 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지난 7월 20일 '푸르니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최초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창립총회에는 발기인 대표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사업부장 덕환 스님, 감사 현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설립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복지 기금 마련 등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추진됐으며, 올초 총회와 종무회의를 거쳐 사업부 주도로 본격화 됐다.

푸르니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사업은 불교 전통 식문화의 대중화 및 사회적 회향이다. 올바른 식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인 사찰음식연구소(소장 선재)를 다목적센터로 확대하고, 사찰음식 교육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사회복지 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찰음식을 통한 대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사찰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는 취지다.

조합원은 크게 푸르니 협동조합의 식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합원과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과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역사회 내 약선김치 나눔, 올 4월부터 사업부가 주관한 사찰 장아찌 및 오신채가 없는 밑반찬의 생산·판매도 협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푸르니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찰을 중심으로 사회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시도"라며 "사찰음식의 전통을 담은 대중화와 공헌 등 수익 창출을 통한 사회적 회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이슈인 미얀마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실천행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는 올 초 군부쿠데타로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해 왔으며 성금을 모아 재한 미얀마유학생을 위한 '민주평화 기원 장학금' 등 미얀마 관련 지원에도 앞장섰다. 8월 28일 오후 2시에는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를 재차 봉행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사찰을 위한 긴급지원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 제하의 캠페인은 올 6월부터 시작돼 이미 2차에 걸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찰 9곳에 대한 긴급지원이 완료됐다.

전국비구니회와 로터스월드는 날로 악화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시기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를 위한 환경문제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녹색사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푸르니청정도량 운동'이 대표적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빈그릇 운동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를 실천하자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올 8월 5일부터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불교기후학교'를 개설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의 '탄소중립시대, 생명살림 사회로의 전환'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신승철 동국대 철학박사의 '탄소중립에 대한 진단과 사회적 책임',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의 '코로나19와 자원순환'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사회적인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비구니스님들의 권익향상과 심리지원에 나선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전국비구니회는 최근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상담전화 '또하나의 도반_마음나눔'을 개설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비구니회가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비구니 전용상담의 필요성이 요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각 분야의 전문상담사 스님을 위촉해 진행 중이며, △수행과 사찰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지원 △수행자로서 연대적 지지와 정서적 공감 △심리적 나눔 및 전문상담 △교육·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제공 △종단 및 기타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상담위원으로는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현정 스님과 부회장 광용 스님, 자문위원 정목 스님, 다르마심리상담센터 대표 효록 스님 등이 활동하고 있다. 02)3411-8105

본각 스님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는 소통과 실천을 지침으로 삼고 비구니승가복지 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대사회역량 확대, 전국비구니회 내실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선포했다"며 "코로나19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BS 나눔의집 보도 허위"…법적조치 예고

조계종, 8월 13일 공식입장 발표

사실관계 밝히며 반박 나서
"공익제보자들 일방 주장에
조계종·나눔의집 명예훼손"

공영방송 KBS가 8월 13일 보도한 '나눔의집 의혹 밝혔지만…공익제보자들은 줄소송에 고통' 제하의 뉴스와 관련해, 조계종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조계종은 "KBS 보도는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으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편향보도"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계종은 8월 13일 조계종 기획실장(대변인) 삼혜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사실성과 객관성이라는 보도의 원칙을 상실한 편향보도로 조계종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감의 뜻과 함께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KBS 해당 보도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을 마치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혼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조계종을 후원금 유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하는 등 조계종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은 나눔의집 일부 이사 스님들에게 제기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심각한 허위사실로 지적된 대목은 보도 중 "공익제보자들이 문제제기 후 줄소송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부분이다.

KBS는 해당보도에서 "공익제보자 7명이 지난 1년간 당한 고소는 40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지만, 조계종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KBS가 실제 고소고발 현황을 확인하고 보도했는지 의문"이라며 "법인에서 확인한 고소고발은 20여건이며, 현재까지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2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건"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계종은 "오히려 나눔의 집 일본인 직원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일부 공익제보자가 코로나 예방 현수막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책임자의 결제 없이 2000만원 상당의 고액 식대를 무단으로 지출한 건 등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경과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계종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법인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익제보자'들의 일방 주장만을 내보낸 KBS의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편향방송"이라며 정정보도와 사과를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6교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 임명

원행 스님, 8월 19일 임명장
"백범 김구 관련 사업" 당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19일 원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단 현안에 대한 관심과 교구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사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앞으로 교구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며 "특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원종 스님) 선생과 관련한 사업들을 살펴 그 업적과 의미가 잘 선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배려 덕분에 본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종 스님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경 스님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백만원력결집불사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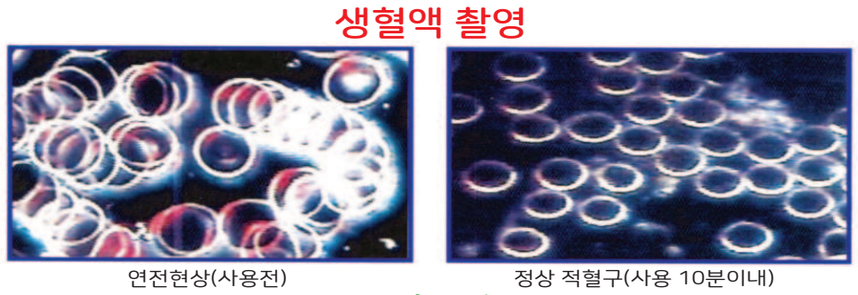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진연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사미계를 수계하고 천안 성불사 주지, 제13~15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송지희 기자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다리에 쥐 나는 것,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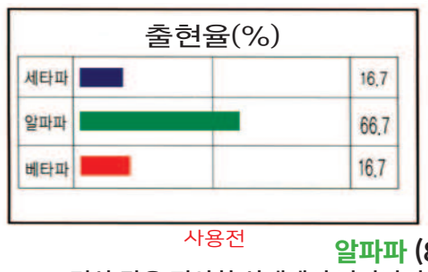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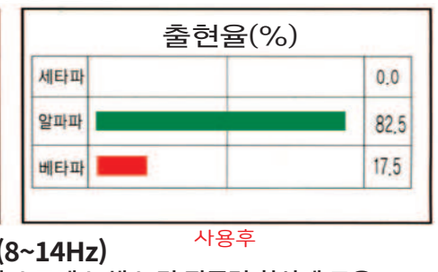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페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BLOOD MATE®로 전신(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샤워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샤워타월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짜고 털어버린 후 샤워타월에 물기 있는 BLOOD MATE®를 골고루 묻혀준 후 전신을 샤워타월로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하얀 거품이 5~7분 내에 전신에 스며들어 마르면서 전신이 붉어지며 그대로 옷을 입습니다.

BLOOD MATE®로 샤워 시마다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계속하면

◈ 포도상구균 99.9% 정균 감소는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을 없애주며, 일부러 때를 밀지 않아도 되며, 발뒤꿈치의 각질이 제거됩니다.
◈ 어깨와 허리, 팔 다리 쑤시고 아프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머리가 쉽게 희어지지 않습니다.(탈모 예방)
◈ 20~30분 정도 누웠다가 일어나면 사우나 한 것 같이 몸살기 있던 몸의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 혈액 정상화(손바닥이 붉어짐) ◈ 피부 보습(촉촉한 느낌)
◈ 젊은 피부로의 환원(매끄럽고 아기 피부 같은 부드러움과 희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향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순비누: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사회 급속확장에도 불교e북 걸음마

[해설] 〈불교성전〉 e북 출시로 본 불교e북 현재

매년 성장하는 세계 e북 시장
코로나19 인해 성장 탄력받아
불교, 이웃종교에 크게 못미쳐
경전 · 책 안읽는 불자층 관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출판사가 8월 9일 출시한 종단본 〈불교성전〉 e북을 두고 불교e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추세와 달리 불교계 e북 출시현황은 이웃종교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불교성전 e북 출시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다.

2007년 e북단말기인 '킨들'을 내놓으며 전자책 시대를 연 세계 최대 온라인서점 '아마존'은 2009년 기념비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연말 e북 판매가 종이책 판매를 앞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2021년 e북 시장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미국 전자책 판매 부수를 집계하는 NPD 북스캔에 따르면, 2020년 전자책 시장 규모는 16% 이상 늘었다.

2020년 일본 e북 시장은 전년 대비 28.0% 증가한 3931억 엔(약 4조769억원 · 일본 출판과학연구소)로 전체 출판시장의 24.3%에 달했다.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도 있지만 태블릿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코로나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확장되는 가운데 e북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2년 주기로 조사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에 1권 이상 읽은 비율 중 e북 독서율은 2015년 10.2%에서 2017년 14.1%, 2019년 16.5%로 매년 늘었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e북 판매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전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e북 시장은 더욱 강점을 띈다. 국내 출판업계는 종이책 규모의 30%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도 발 빠르게 e북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아직은 먼 이야기다. 현재 불교계 e북 관련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보e북 불교 코너에서는 1761권이 판매 중이다. 가톨릭 포함 기독교 9154권에 비하면 현격히 적다. Yes24서도 기독교 8598권에 비해 적은 986권이 판매 중에 있다.



조계종 출판사가 출시한 불교성전e북.

가장 큰 요인은 사회와 다르게 불교계 e북 시장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갤럽이 2021년 3~4월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1984-2021 한국인의 종교에서 주 1회 경전 독서자 비율은 개신교인 42%, 천주교인 35%, 불교인 3%였다.

불교출판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영세한 출판사들이 많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여 종의 e북을 선보인 불광출판사는 전담 인력이 출간되는 종이책을 모두 e북으로 출시하고 있다.

김대현 불광미디어 마케팅 부장은 "불교 서적 시장 규모가 기독교계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라고 업계서 보고 있다. e북에서의 격차는 종이책의 격차보다 더 클 것으로 본다"며 "매출 비중이 5~10% 수준에 불과하고, 인력 규모에서 차이가 있기에 불교계 출판사들이 e북 발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열 불교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e북의 경우 현재는 출간까지 종이책에 비해 비용부담이 상당히 작은 편"이라며 "관건은 고령화된 불교서적 주요 소비층이 e북을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다. 조계종단에서 캠페인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수지독송 운동을 펼치는 〈불교성전〉의 e북 출시를 계기로, 불교e북 시장 또한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함께 걷고, 기억한다

대승마야투어, 천리순례 단기프로그램 선보여

9월30일에 입재하는 순례
1박 3일 등 단기참여 눈길
코로나 상황 맞춤형 기획
개별 숙식과 보험 등 제공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성지인 삼보사찰을 참배하는 일반인 대상 단기 순례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불교 전문여행사 대승마야투어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간 총 423km 구간에서 진행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하는 단기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번 단기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당일코스와 주말코스(1박 3일), 삼보사찰코스(2박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기프로그램의 장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개별 숙식과 전용버스 등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국내 여행자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지난해 진행된 상월선원 자비순례에서는 하루 20명이 넘는 일일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등 일반불자들의 참여가 많았지만 첫 장기순례 과정에서의 동참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이번 단기프로그램은 이런 참가자들이 현장에서의 애로점을 최소화하여 순례단과 함께 천리순례 향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10월 1일 송광사 입재일부터 10월 18일 회향일까지 당일로 동참하는 당일코스 프로그램이다.

동참금은 1인당 5만원으로 조식과 중식, 생수 등이 제공되며 국내여행자 보험 및 코스 내 부상자 버스 등도 운영된다. 해당일 새벽 3시 입재식에서부터 동참하여 하루 회향 후 서울 등 주요 거점 출발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금토일 주말 3일 코스 프로그램이다. 1코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성암과 화엄사까지 이어지는 총 50km의 만행체험으로 마감인원은 200명이다. 2코스는 10월 8일부터 10일 법보사찰 해인사 소시길과 고령까지 이어지는 총 49km의 만행체험으로 마감인원은 108명이다. 3코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표충사와 억새평원 사자평을 넘는 총 49km 만행체험으로 마감인원은 108명이다. 4코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억새평원 사자평을 넘고 통도사 회향식에 동참하는 48km 만행체험으로 마감인원은 108명이다.

세 번째는 삼사순례 2박 3일 코스로 하루 동안 순례단 만행순례에 동참하고, 나머지 시간을 삼사 사찰 순례에 별도로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송광사 입재식과 첫 걸음인 22km를 동참하는 순례프로그램,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천리순례 최대 난코스인 지리산 성삼재인 20km를 등반하는 순례프로그램,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해인사 소리길 순례길인 27km를 걷는 순례프로그램,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억새평원 사자평 순례길 25km를 걷는 프로그램,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천리길 마지막 동행인 회향식 동참 순례길 23km를 걷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호텔 또는 리조트 숙박 2박과 조식 2회, 중식과 석식 3회 등이 제공된다. 동참금은 인당 49만원이다.

코로나19 관계로 출발 3일전 PCR검사 음성통보를 받은 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확진 등 사유로 취소시 계약금이 전액 환불된다.

대승마야투어 측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출재가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자리"라며 "스님들과 함께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다시없을 결사의 현장에 함께할 이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2)730-0202 노덕현 기자

"정부, 탈원전 의지 있나…탈핵선언 회귀 안돼"

종교환경회의, 탈핵 비상선언
정치권의 탈핵 무관심에 일침

종교환경회의가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탈핵선언에 역행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종교환경회의는 8월 19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에 핵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재차 선포했다.〈사진〉 종교환경회의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이 선언됐지만 선언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쳤다"며 "대선 공약들이 훼손되기 시작했고 탈핵의 시계는 한참을 늦춰졌다"고 비판했다.



종교환경회의에 따르면 현정부 임기 내에 오히려 신규 핵발전소가 늘었고, 2024년 완공과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핵발전소가 끊임없이 고장과 사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고준위 핵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 역시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사실상 탈핵을 이룰 만한 어떤 법제정도 이루어진 바가 없고 정부 역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심지어 정권의 임기 말이 되니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탈 원전 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선언한 '탈 원전'을 이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한 종교환경회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탈핵은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기에 우리 종교인은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지희 기자

차별금지법, 왜 제정돼야 할까?

'차별금지법과 불교' 온라인 강좌
차별금지~불교네트워트,
8월18일부터 4회로 진행

"차별금지법은 왜 제정돼야 할까?"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불교교리 등 분야별로 살펴 그 당위성을 알리는 온라인강좌가 시작됐다.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네트워크는 8월 18일부터 '차별금지법와 불교' 주제 강좌를 진행한다. 8월 18일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차별금지법과 한국사회의 인권지형'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8월 24일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의 '교리적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이해', 9월 1일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법률적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이해', 9월 8일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불교계 선언문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최측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음에도, 정치적 유 · 불리에만 치우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실현을 위한 책무를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강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불자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달라이라마 "어려움, 또 다른 기회"

한국 불자 특별법회 8월 18일 유튜브로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라를 잃고 망명 중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려움이란 상황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이를 더욱 가치있게 활용해갑시다."

세계인들의 영적지도자로 추앙받는 달라이라마가 8월 18일 한국불자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열고, 한국에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들며 극복을 위한 마음을 함께 내줄 것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8월 18일 공식유튜브채널을 통해 '자비와 비폭력'을 주제로 한국 불자들을 위한 온라인 대중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온라인 법회는 삼학사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자리한 인도 다람살라 현지서 진행, 14개국에 동시통역돼 소개됐다.

법문 화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였다.

현재 달라이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중이다. 인도 현지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부 출입 조차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저는 나라를 잃고 망명을 했지만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려움과 시련을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했다"며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여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정진했고, 사람들에게도 마침내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이어 "오늘날 이런 위기 상황은 인간으로 태어난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더욱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주변의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매일 일어나자 마자 보리심을 사유하고, 보리심을 닦으려 노력하고 있다. 보리심은 자타를 모두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에 가까워지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 조차도 나의 스승처럼 여기게 된다.

'자비와 비폭력'을 주제로
한국 불자 온라인서 만나
망명아픔 수행 전환 밝혀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오히려 나의 스승과 같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자들을 위한 법회기에 달라이라마는 기도와 예불, 선정에 드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대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수행의 동기는 자비심이어야 한다. 자비심은 부처의 씨앗이며 이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달라이라마는 한국인들에게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며 웃었다. 현재 달라이라마방한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만 첨예한 중국 입장 등으로 방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불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달라이라마 공식채널 갈무리

달라이라마와의 즉문즉답

Q. 우리시대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요?

A. 불교적 관점에서 생하면 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 등은 소멸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위급한 상황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나섭시다. 인간으로 태어난 가치를 잘 활용키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Q.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죽음이 닥쳤을 때 미세한 의식을 활용한 수행이 있습니다. 툭담입니다. 죽음에 임박하면 우리 몸을 유지하던 지수화풍이 무너집니다. 그 임박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생전 수행한 공성에 대한 깊은 삼매에 듭시다.

Q. 요즘 자식학대 등이 늘고 있습니다.

A. 〈입보리행론〉을 보면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사랑과 보살핌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사랑과 배려, 자비 등을 느끼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Q. 화난 감정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A. 〈입보리행론〉을 보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자비심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 보고 생각하며 마음 속에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칩니다

A.전염병으로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화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술들을 활용해 서로 더 잘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포교사단, 내년 5월 온라인 강의 진행

포교사단 8월 10일 언택트 운영회의 결과

온라인으로 주요회의 진행
교육시스템 구축 의견모아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8월 10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온라인 강의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을 모았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운영위원회의에는 방창덕 단장을 비롯해 김영석 수석부단장 등 42명이 참석했다.

방창덕 단장은 "해를 거듭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창궐과 찜통더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활동 중인 단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응원도 함께 보낸다"며 "코로나 상황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필요 예산은 초기 장비구입 및 시스템 설치비 2740만 원과 서버관리비 등 연간 운영비 1554만 원으로 2022년 5월 1일 정식 가동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본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에 부산지역단 700권, 강원지역단 320권 등 동참과 함께 디지털불교대학에서 54강좌(강사 혜장, 운성, 동명, 금강 스님)를 준비하고 포교사 팀별로 수행방안도 마련하는 것을 논의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종교편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제12대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있다. 포교사단 선관위는 8월 24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세부 일정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은 8월 10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결의했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가을학기 개강

입문 · 심화 · 전문 등 개설… 30세 미만 무료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함께 생활참선 가을학기를 개설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튜브 생활참선 채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하반기 입문코스 14기, 심화코스 12기, 전문코스 8기, 지도자코스 3기 과정을 진행한다.

초심자를 위한 생활참선 입문코스는 8월 31일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비대면 수업 중 해인총림 해인사 백련암에서 증명법사 원택 스님을 만나 참선에 입문하는 대면수업도 포함되어 있다.

심화코스는 1년 6개월의 과정으로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가 〈신심명〉과 〈증도가〉 〈돈오입도요문론〉을 강의한다. 또 구산선문 중 실상산문 실상사와 백장암, 벽송사 등을 순례한다.

2년제 참선 전문가 과정인 전문코스는 9월 2일 개강한다.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유마경〉을, 박희승 교수가 〈간화선〉을 교육하며 실참수행을 병행한다. 지도자코스는 9월3일 개강해 〈선요〉와 성철스님 화두참선법을 논강식으로 공부하며, 충주 석종사에서 수련하고 선원장 혜국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한편, 청년포교 취지에서 만 30세 이하 청년 불자들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노덕현 기자

'붓다나라' 초기불교 가을 강좌 연다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4강

이중표대표가 직접 강의나서
'정선 쌍윳따니까야' 교재로
유튜브 붓다나라TV서 중계

붓다나라 깊은공부도량(이중표 대표, 전남대 명예교수)이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2021년 가을학기 강의를 시작한다.

강사는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이며 '정선 쌍윳따니까야'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수강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 유튜브(붓다나라 TV)로 중계되는 실시간 강의와 줌(zoom)을 통한 실시간 강의로 병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매주 국내 각 지부를 돌며 유튜브(붓다나라 TV)로 중계하는 현장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불교 전문가인 이중표 대표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정선 디가 니까야〉,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현대와 불교사상〉, 〈불교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역서로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등이 있다.

현장 강의 장소 및 문의처는 붓다나라 서울지부(강남구 역삼동 662-13, 010-6374-6396), 붓다나라 광주지부(동구 예술길 31-9, 010-4783-6637), 붓다나라 부산지부(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8, 11층, 010-5155-9511), 붓다나라 대구지부(동구 동대구로 503 투에버 1층, 010-2367-5918), 붓다나라 미주지부(+1 707 400 5588)다.

참가비용은 18만 원으로 미주지부는 미화 150달러다. 가족은 1명만 수납하면 되며 참가 희망자는 각 지부별로 수강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붓다나라 홈페이지(buddhanara.or.kr)에서 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공익성 높이니 호응 'UP'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공익 사업 '인기몰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 문화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공공성을 높여 대중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찰음식 공익사업 역시 준비된 수량이 거의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공익성'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사업의 중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9100명이 공익 템플스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공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다.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3박 4일간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6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가비의 30%를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연인원 기준으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에는 2500명이 다녀갔으며,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는 3900명이,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는 27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선착순 1만 명에게 제공하는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는 운영 2달 만에 전체 제공 인원의 30%인 2900명이 신청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참가자 추이를 파악한 후 인센티브 제공 인원 증대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템플스테이는 20~40대가 전체 참가자의 70%인데, 8월부터 이들의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른 조기 인센티브 마감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사회 공익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꾸준한 성장세다. 최근 3년 간 공익 템플스테이는 전체 참가자의 7.1%에 해당하는 8만 900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음에도 공익 템플스테이에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대중들의 호응도 높았다.

현재는 코로나19관련 의료진, 피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주류지만, 공익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운영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처음에는 개별 사찰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제공했다.

이후 2010년에 들어서 불교계 단체들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문화사업단은 '공익 템플스테이'라는 명칭으로 복지관 · 청소년 보호관찰소 · 고아원 등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사찰을 연계해주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11월 문화사업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도박문제 치유 · 재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템플스테이 사회공헌성을 높였다. 이는 〈도박중독자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정신 및 감정 노동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업연수 프로그램 매뉴얼〉 등의 제작으로 이어져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김유신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장은 "공익 템플스테이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진행돼 왔다. 치유와 소통을 통한 사회 공헌도 템플스테이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템플스테이를 제공했고, 올해부터는 공연과 전시를 못 하게 된 문화예술인에게도 무료 템플스테이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9100명 공익템플스테이에 참여
코로나19에도 지난해 3만여 명 혜택
백신 접종 확산위해 템플스테이 할인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 음식' 인기
"공익사업, 브랜드 인지도 긍정 확산"

문화사업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사찰음식'도 공익성을 더하고 난 후 대중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사연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온라인 수기 모집'은 준비한 수량이 거의 소진될 만큼 많은 사연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도시락 및 간식 수량을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사회 공익 사찰음식 사업에는 지난해 1만 6000여 명이 수혜를 받았다.

접수된 사연들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김포공항 직원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찜통 무더위 속에서도 승객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 방역을 위해 공항 직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명절도, 낮밤도 없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다"는 신청 사연을 보내왔다.

경기도 보건지소 공무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로 휴일에도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은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찰음식이 성인병이나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익 사업들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긍정적 평가로 작용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하원 스님의 연구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템플스테이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템플스테이 연관 검색어 분석 결과 1위는 '코로나19', 2위는 '문화사업단', 3위는 '의료인'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문화사업단이 시행한 공익 템플스테이와 관련한 것으로 의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연관 키워드들도 상위에 위치했다.

하원 스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는 현대 마케팅 환경에서 문화사업단의 이 같은 공익 활동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나아가 템플스테이의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 나아가서는 참가자 증가와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사업단도 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를 위로하기 위해 공익 템플스테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심신안정과 힐링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닥토닥 및 쓰담쓰담,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는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전국 135개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가능하다. 참가 시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 소상공인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해당하는 서류를 사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연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온라인 수기는 9월 3일까지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의 사연'을 주제로 사찰음식 홈페이지(koreatemplefood.com)에서 접수하고 있다. 누구나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연이 채택되면 사찰음식 도시락이나 간식을 최소 20개에서 최대 50개까지 받을 수 있다. 사찰음식 특성상 서울 · 경기지역은 도시락과 간식, 기타 지역은 간식이 배송된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미·사미니스님

입원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그동안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의료비 수혜대상을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스님으로 확대하는 승려복지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사미·사미니계 수계 이후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
※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종단홈페이지 – '승려복지'에서 양식 다운)
※ 당해 기본교육기관장의 확인(지원신청서 하단)을 받아야 함
2) 진료비 내역이 표시된 납부영수증 사본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지원 범위
1)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미용 및 보양목적은 제외)
2) 일반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1회 신청금액 10만원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기간
퇴원 후 1년 이내(사미·사미니의 경우 휴학 중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입원진료 적용

지원 절차
1) 자격심사 : 결계록 등재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기본교육기관 재학여부(교육원 확인)** 등
2) 신청자에게 입원진료비 입금
3)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접수및 문의
1) 접수 : 우편 및 팩스 (02-733-3603)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승려복지회
2) 문의 : **02-2011-1726~7, 1980~2**

불기2565(2021)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일념으로 정진해 진리의 문에 들라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자개주장자(這箇拄杖子)는
삼세불조명근(三世佛祖命根)이며 열성겸추(列聖鉗鎚)라.
환두이성(換斗移星)하고 경천동지(驚天動地)로다.
십마인(什麽人) 임마래(恁麽來)오?
시거간(試擧看)하라.

이 주장자는
삼세불조의 생명의 뿌리이며 열성의 불집게와 쇠망치라.
북두를 잡아 별을 옮기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인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보라.
금일(今日)은 하안거(夏安居) 해제일(解制日)입니다.
결제(結制)와 반살림을 지나 어언간(於焉間)에 해제일이 도래하니,

이처럼 시간(時間)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신속(迅速)하니 결제, 해제가 반복되는 일상(日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금일은 있음이나 내일은 알 수 없으니, 금생에 대오견성(大悟見性)하지 못한다면 어느 생(生)에 부처님 심인법(心印法)을 만난다고 기약(期約)하겠는가.
이 공부는 결제해제에 불상관(不相關)하고 일생을 걸고 신명(身命)을 바쳐 "금생에 기필코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간절(懇切)한 각오로 화두(話頭)를 참구(參究)하면 누구라도 진리(眞理)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하고 이 화두를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여 일념(一念)이 지속되도록 정진(精進)하고 또 정진할지어다.

진리의 문(門)을 활짝 여니
범부(凡夫)와 성인(聖人)이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진리의 문(門)을 닫으니
북쪽에는 백두산(白頭山)이요, 남쪽에는 한라산(漢拏山)이로다.

지금 이 자리는 범부(凡夫)와 도인(道人)을 가리는 선불장(選佛場)이다.
누구든지 꾸준히 갈고 닦아 자신의 본분사(本分事)를 뚜렷이 밝혀낼 것 같으면, 도인과 범부를 가리는 이 관문(關門)을 통과하여 불법 정안(正眼)을 인증(印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혼자서 스스로 '알았다' 고하면 모두 사견(邪見)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먼저 깨달으신 선지식(善知



識)을 찾아가서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점검(點檢)받아야만 그 진위(眞僞)를 가릴 수가 있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도 "스승 없이 깨달은 자(者)는 모두 천마(天魔)이고 외도(外道)이다."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제불제조(諸佛諸祖)께서 인증(印證)의 가풍(家風)을 확고히 세워놓으신 것이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위대한 선지식(善知識)은 할(喝)로 유명한 임제(臨濟)선사와 봉(棒)으로 유명한 덕산(德山)선사로 상징(象徵)된다.
그 덕산 선사의 제자로 암두(巖頭)선사와 설봉(雪峰)선사를 두었다.
암두선사께서 불법사태(佛法沙汰)를 당하여 속복(俗服)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뱃사공을 하면서 사셨던 적이 있었다.
양쪽 강둑에 각각 목판(木板)을 하나씩 걸어놓고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목판을 치면, 초막에서 노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강을 건네주곤 하였다.
어느 날 한 보살이 아이를 업고 와서 목판을 쳤다. 암두 선사께서 "누구요?" 하고 나와서 여느 때처럼 춤추며 와서 배를 대니, 보살이 갑자기 아이의 멱살을 잡아 쳐들고서 물었다.
"노를 잡고 춤추는 것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일러 보시오."
암두 선사께서는 말없이 노를 가지고 뱃전을 세 번 쳤다.
그러자 보살은, "내가 아이를 여섯이나 낳았어도 지금까지 아는 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일곱 번째 아이를 낳고 만난 이 자도 역시 신통치 못하구나"하면서 쳐들고 있던 아이를 강 가운데로 던져 버렸다.
그런 후로 암두 선사께서는 뱃사공 일을 걷어치워 버리셨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법문이다. 보살이 귀한 아이를 강에다 던져버린 까닭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답을 했어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암두 선사께서 뱃전을 세 번 친 그 답이 잘못된 것인가?
아이를 강물에 던진 보살은 어떠한 용심(用心)을 한 것인가?
이러한 관문을 능히 통과해야만 과거장(科擧場)의 합격자로 인증(印證)을 받아서 비로소 만인에게 불법의 진리를 펼 수 있는 사표(師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삼매로 여여하길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찰해무애(刹海無涯)해도 분리당처(不離當處)이며, 진겁전사(塵劫前事)해도 진재이금(塵在而今)이니라. 시교이적면상정(試敎伊覿面相錠)하니, 변불해당풍염출(便不解當風拈出)이구나. 차도, 과재십마처(且道, 過在什麽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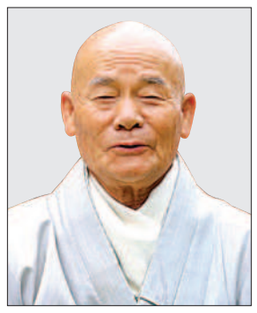
오늘은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여름 한철 대중스님들께서 여법하게 정진하시고 이제 산문을 나가 각자의 수행처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며 조용한 가야산 산중에까지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더욱 조심하고 자신을 잘 챙겨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역경계도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화두를 챙기고 정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산문을 나가 어디를 가든 그 자리가 수행처이고, 안거를 보내고 산철을 지내도 언제나 삼매로 여여(如如)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부터 지금의 상황을 여실히 바라보고 변화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도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무상의 법은 시비 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에서 지혜스럽게 작용할 때 모든 것이 활발하고 분명해 집니다.

선자파색서우(扇子破索犀牛)이니,
권련중자유래유(棬攣中字有來由)이라.
수지계곡천년백(誰知桂轂千年魄)이,
묘작통명일점추(妙作通明一點秋)이리요.

부채가 부서져 무소를 찾으니, 일원상의 한 글자는 그 유래가 있도다.
누가 알았으랴? 달빛없이 어두운 기나긴 밤이, 가을의 보름달이 되어 환히 밝아올 줄을.

신심은 바람이요, 거문고줄 골라졌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여름을 떠나는 풀벌레 합창도 숲속으로 잦아듭니다. 끝 간 데 없이 높아진 하늘, 가을이 전설처럼 밀려옵니다.
만상이 적멸이라 석가의 면목이요/ 적멸이 멸이하니 진귀조사 얼굴이로다 / 부처님 묘리진광은 길이 매하지 않네 / 누가 보리도를 묻는다면 대답 않고 백운 사이로 돌아가리.
만공 스님 법문입니다. 어떻게 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살행이 있을 뿐입니다. 세세생생 보살행이 있을 뿐입니다.
태양과 바다가 바람을 만나면 활력이 펑펑 쏟아집니다.
새벽하늘 푸른 깊이 굽이굽이 산 능선, 대지의 땅향기 물소리 새소리 구절구절 대각이요, 유아독존이요, 보살행입니다. 넘치는 이 웅장한 활력을 다 쓰는 이가 누구입니까? 보시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이뭘까 화두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도히 흘러서 흘러 돌아옵니다. 텅텅 비어서 하늘땅이 막 탄생되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이 따뜻한 관심, 이 웅장한 활력, 모두가 보살행의 원동력입니다. 이 자체로 돌이키는 힘입니다.
쉬어쉬어 쉬어진 생명자리로 돌아와 쉬게 해주는 것이 이~뭘까요, 주고 또 주고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턱밑에 소리 없는 작은 맥박도 보살행이요, 이뭘까를 굴리는 용맹정진입니다.
물고기는 물이오, 학은 허공입니다.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광활한 저 바다, 거침없이 날 수 있는 가없는 저 허공, 허공과 바다는 주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보시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이뭘까로 돌이켰을 때 저절로 곁에 와줍니다.
일이 없는 쉬어진 선불장은 주는 마음으로 돌아선 납자에게 저절로 돌아오는 가피입니다.

自性五分法身香으로 장엄한 法界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頭頭總是요 物物全彰이로다
古今凡聖을 不用思量이니
刹塵沙界諸群品이
盡入金剛大道場이로다

두두가 모두 이것이요
물물이 온전히 드러내도다
고금의 범부와 성인을
사량하지 말지니
찰진세계의 군품이
모두 금강대도량에 들어있도다

총림대중이여!
화두참구의 일념에 삼복더위의 위세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노송 그늘을 지나 반석 위를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이 세상의 뜨거움을 식혀 주게 되었습니다.
정진대중과 외호대중이 화합하여 이루어 낸 향긋한 결실입니다. 이는 자성오분법신향으로 법계를 장엄하고 만덕을 구족하게 하여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자성오분법신향은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각자의 마음에서 풍기게 하는 것이니 결코 밖을 향하여 찾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름(非)이 없고 악함과 질투가 없고 탐냄과 성냄이 없으며 또한 빼앗고 해치는 마음까지 없는 것을 계향이라 하며, 선악의 경계나 형상을 보고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향이라 합니다. 이 향은 성품의 향이므로 제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화두탐구의 일념은 오분법신향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는 최고의 수행방편입니다 지난 삼하의 정진은 법계를 오분법신향으로 장엄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이르는 곳마다 그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표충사 호국박물관 재개관

8월 15일 재개장기념 법회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휴관했던 표충사 호국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호국성지 표충사의 역사와 사명대사 관련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노후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난 1월 휴관했다.

표충사(주지 진각)는 효과적인 유물 보존과 최적의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부터 내부시설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8월 초에 공사를 마친 표충사는 8월 15일 호국박물관 앞마당에서 '표충사 호국박물관 상설전 재개장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박물관을 다시 열었다.

기념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테이프 커팅 △전시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표충사 호국박물관 부관장 여서 스님을 비롯해 이병희 경남도의원, 유석영 표충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은 축사에서 "표충사 성보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임진왜란 당시 적진을 찾아가 '이 나라의 보물은 바로 일본 장수의 목'이라고 말했던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희 경남도의원은 "표충사 호국박물관에는 밀양에서 유일한 국보가 전시되어 있으며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표공간이다"며 "앞으로도 밀양을 찾는 시민에게 호국의 얼을 알려주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월부터 내부시설 보수공사 시작
"사명대사 호국정신 만나는 공간"
기념전서 아미타구품도 최초공개

주지 진각 스님은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국보를 비롯해 중요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인해 유물 훼손 위기가 있었다.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공간이었다"며 "재개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중요 유물을 선보이고 아름다운 불교문화 뿐 아니라 사명대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1992년에 신축됐다. 2002년 상설전시실을 개관하고 국보 제75호 청동은입사향완과 국가민속문화재 제29호 사명대사 금란가사와 장삼, 제1944호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등 1050점에 이르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시해 왔다. 그러나 박물관 건물의 노후와 낙후된 전시환경으로 문화재 훼손 문제가 대두됐고 재정비를 위해 휴관했다.



표충사는 8월 15일 경내 박물관 앞마당에서 '표충사 호국박물관 상설전 재개장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3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부터 2021년 문화재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정돼 전시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다. 표충사 호국박물관은 먼저 유물 보존을 위해 내부 방수 공사와 방습 장치를 구비했으며 전시 내용을 재구성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표충사는 호국박물관 상설전 재개관을 기념하며 '義忠, 마음은 표현해야 알 수 있다' 전시회를 마련하고 경남도 유형문화재 아미타구품도를 공개했다. 아미타구품도는 최근 보존처리를 마쳤으며 대중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유물이다. 아미타구품도는 〈아미타경〉을 바탕으로 극락정토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해 둔 1880년 조선 후기 작품이다. 그 외 표충사의 역사를 비롯해 성보,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유물을 함께 볼 수 있다. 특히 사명대사의 가사고리, 교지, 봉별사명대사현판 등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055)352-1150

부산불교聯, 장안사 폐기물매립장 건립반대

8월 12일 성명서 발표, "폐기물매립장 허가 불허"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8월 1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장군 장안사 인근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 추진을 반대하는 '천년고찰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립지 허가 심사일인 8월 25일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환경파괴로 시민의 건강과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며 "사업계획 허가시 200만 부산 불자를 대신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형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파괴는 생존의 위협이다"며 "6만 평에 이르는 폐기물 매립장은 혐오시설이다. 기장군은 현재 원전 밀집구역이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사무국장은 "산업폐기물매립장 부지는 천년고찰 장안사와 불과 1.5km거리에 위치했고 식수원 발원지다. 또 치유의 숲을 조성 중인 대운산과 울산 수목원이 인접한 구역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8월 1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천년고찰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기장군에 건립을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보전녹지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사업 추진 검토를 받고 있으며 규모는 6만 평이다. 심한 악취 우려 및 자연파괴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국장은 "악취가 나는 장안사 계곡은 악몽이 될 것이다"며 "기장군 산업 폐기물 매립 단지는 공익을 가장한 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논의 중인 것이다. 부산불교연합회와 200만 불자는 신청허가를 반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코로나 시대 '경전 공부로 성장'

부산불교교육대,
하반기 신입생 모집

불교엘리트 1기 과정 등
심화과정, 기초강좌 개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코로나 시대를 위한 경전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2021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전 심화과정에서는 불교엘리트 과정 1기를 모집한다. 불교엘리트 과정은 〈화엄경〉과 〈금강경〉을 공부하는 6개월 과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를 사는 대중을 경전 공부로 이끌기 위해 개설됐다. 평소 쉽게 접근 할 수 없었던 경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경전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불교엘리트 과정은 올해 3월에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화엄경〉 강의로 시작됐다. 130여 명의 수강생들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고 그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에 〈금강경〉을 주제로 개설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하반기 교육과정으로 불교엘리트 과정 1기를 모집한다. 사진은 2018년 졸업식 당시 모습.

강의는 前 해인사 강주 보윤 스님이 담당한다. 강의는 9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6개월간 이어지며 대면과 비대면 유튜브 강좌도 병행한다.

신규탁 교수의 〈벽암록〉과 〈화엄경〉 과정도 유튜브 강좌로 제공된다. 〈벽암록〉은 3개월 동안 월, 수요일 각 30분씩 영상강의로 진행되며 〈화엄경〉은 6개월 동안 매주 화, 금요일 각 60분간 진행된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외 하반기 강좌로 6개월 과정의 기초교리학을 매주 화요일 7시 진행한다. 강의는 학장 범혜 스님이 담당한다. 불교문화포교사와 불교문화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인 불교문화학과 수업은 6개월 간 매주 수, 금요일 7시에 진행되며 강의는 김춘식 교수가 담당한다. 합창단, 수화반, 다도반, 대금반, 사물놀이단 등 문화 힐링 과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하반기 입학식은 9월 6일 오후 7시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개강 특강으로 '신규탁 교수의 벽암록'이 진행된다.

학장 범혜 스님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불자들이 성숙하고 경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면 부산불교교육대학이 40주년을 맞는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부산불교 재가교육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산실이었다.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봉사 및 실천을 통해 회향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주교도소 불교위, 얼음빙과 전달

8월 4일 전주교도소 앞서 전달식



전주교도소 불교위원회는 8월 4일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얼음빙과 2800개를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불교위원회(위원장 현진. 천지사 주지)는 8월 4일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얼음빙과 28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얼음빙과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전주교도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교도소 봉쇄조치가 내려진 어려움을 감안해 불교위원회가 마련했다. 얼음빙과 나눔에는 이화불교사와 군산 염불사 혜운 스님이 후원했다.

얼음빙과 전달은 교도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모든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정문에서 전달식만 진행됐다.

블교위원장 현진 스님은 "수용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확진자 발생으로 문밖출입이 제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교정협의회(회장 진성)와 불교위원회는 여름철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정기적으로 얼음생수와 얼음 빙과를 전달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비대면 통신교육 3개월과정(제6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비대면 녹음강의 통신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교육기간 : 2021년 9월 6일부터 3개월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화 질의 상담으로 지도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메일, 팩스, 문자 접수 가능)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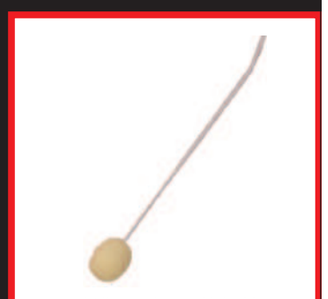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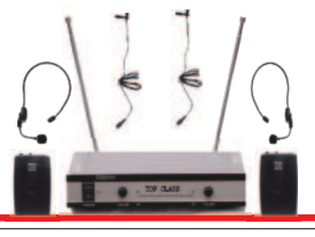

볼에 부치고 염불하는
탑클라스 무선 마이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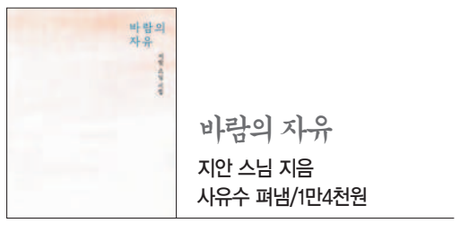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8~8/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선재동자	준철묘원	영출판사	6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2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7	현실은 영원이다	지광 스님	위로
3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일묵 스님	불광	8	프리스틴 마인드	올갠 초왕 린포체	운주사
4	눈먼 보리와 도둑 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9	원빈스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 스님	이층버스
5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10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상태	천시아	젠북

책세상

“사색의 길에 떨어진 생각 언어들 모아”



바람의 자유
지안 스님 지음
사유수 펴냄/1만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살아간다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귀로〉
“하늘은 자시에 깨고, 땅은 축시에 깨고, 사람은 인시에 깬다. 〈새벽은 불침번〉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은 통도사 강주와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 조계종교육원 역경위원장, 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전통적인 경전 강의와 승가교육에 힘써왔다. 평생 경전 관련 강의와 글만 쓰시는줄 알았는데, 시집을 냈다고 껄껄 웃으시며 1주일전에 전화를 주셨다. 사실 지안 스님과는 10년전, 도반인 호진 스님과 함께 펴낸 〈성지에서 쓴 편지〉의 서평을 쓰면서 인연이 됐다.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더위와 숙소도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구법의 길을 나선 도반 스님간의 주고받은 진솔한 편지글을 통해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인간적인 참 모습인지를 잘 조명한 책이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집을 내셨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지안 스님은 언제 뵈도 순수하시고 맑은 수행자의 기품이 넘쳐 충분히 시심(詩心)을 글로 옮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를 읽어보니 스님이 사시는 반야암의 주변 환경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지안 스님은 책 머리말에서 “방 밖으로 나가면 숲속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이 있다. 매일 이 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다람쥐를 만난다. 오가는 이 길이 나의 사색로이다. 숲 속을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다. 부질없는 망상이 떠 오를 때도 있고 어느때는 경전 구절이 떠올라 마음을 반조해 보기도 한다. 숲속을 거닐면서 정서적 순화를 느끼며 마음에 그윽한 회포가 서려올 때도 있다. 이 시들은 분수밖의 일을 하는 것 같아 주제 넘는다는 생각도 들지만, 내 사색의 길에 떨어져 다람쥐가 주워먹는 도토리 같은 내 생각의 언어들이다”고 시집을 낸 배경을 설명한다.

지안 스님의 이번 시집은 ‘산중 소식지’ 이자 ‘산중 실록집’ 이다. 스님은 이번 시집을 통해 뭇 사람들이 존재의 심연 속에서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며 찾아가고 싶어 하는, 덧나지 않은 오지(奧地)의 진실한 산중 소식들과 그 기록들을 봄날의 미풍처럼, 여름날의 해풍처럼 배달해 준다. 도대체 산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번 시집을 보면 그곳에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산중은 개산(開山)의 그 시절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無事)의 전통을 유지하고 언제나 적멸을 주인공으로 품어 안고 살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일도 되지 않는 묘용을 함께 공부하는 곳이다. 그러고 보면 뭇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귀를 기울이고, 때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연인이라도 만나러 가듯 발길을 뜨겁게 내딛는 그 산중의 중차대한 소식은, ‘아무 일이 없다’ 는 그 단순하나 심오한 무사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산중서 불어오는 새 소식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음으로써 마치 잘 달여진 탕약을 먹은 것처럼 안심하고 일상을 다시 사는 힘을 얻는다.

저자인 지안 스님은 이번 시집에서 영축산과 운장산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한다. 그 산들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 ‘불인(不仁)’ 의 ‘평등성(平等性)’ 을 지닌 무심과 무위의 산이지만, 스님은 그 산에서 보배로운 소식을 법성게의 보배비를 받아 안듯 진정 큰 마음의 그릇으로 받아 지니고

‘반야오솔길’ 카페에 올린 시 1백여 편 모아
이번 시집은 ‘산중소식지’이자 ‘산중실록집’
시와 도, 세상과 산중 표현한 시법이자 시어

산다. 이런 일은 지안 스님이 산과 깊이로 산 세월의 용량과 그 산과 한마음으로 산 세월의 무게와, 그 산과 도반이 되어 길을 걸어간 세월의 너비를 알려준다.

지안 스님이 전하는 산중 새 소식은 이렇다. ‘아무 일이 없는’ 이곳엔 봄이 오니 산천의 축제가 벌어진다, 날마다 산간의 새벽은 천지인의 깨어남을 지키고 있다, 불어난 계곡물 위의 꽃잎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또 묻는다, 나뿐만 아니라 꽃들도 나를 붙들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런다, 눈(雪)이 내려 일색이 되니 눈(眼) 밖에 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눈 내려서 백화도량이 되니 감로의 향기만이 가득하다, 산물을 다 내려 보낸 골짜기는 혼자서 쉴 수 있는 은신처이다…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아무 일이 없는’ 산중의 소식은 그야말로 상대(相對)의 문법에 갇혀서 아프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絶對)의 실상세계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일깨우고 안심시키는 양약이자 치유제이다.

첫 시집을 펴낸 지안 스님은 경전 공부를 하거나 매일 아침 영축산 산책을 하면서 떠오른 시상을 글로 적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 공부입니다. 나는 평생 경전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경〉이나 〈법화경〉 경문 속에는 반드시 운문으로 된 게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실제 불경을 많이 보면 저절로 시심이 생기지요.” 지안스님은 100여 편의 시 가운데 ‘별을 보는 밥’ 을 예로 든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이때 어둠은 중생의 어두움 즉 탐욕과 무지를 뜻하고 반짝이는 별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의 광명이다. 사람은 누구나 번뇌의 하늘에서 무명을 밝혀나가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집 〈바람의 자유〉는 ‘산창의 풍경’ ‘달을 보는 부처님’ ‘돌의 자화상’ ‘동백꽃 연기’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지안 스님의 시 속엔 아주 인간적인 면모들이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다. 시라는 세속적 양식에 어울리는 언어와 그 구체화 과정을 거치는 데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다.

또한 스님의 시에선 인간적인 소리와 각성의 소리가 늘 이중주처럼 흘러나온다. 전자의 소리가 뭇 사람들 감성에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면, 후자는 그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낯설지만 신선하고 편안한 본래 자리를 만나게 한다. 가령 지안 스님은 당신의 시 〈살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에서 ‘살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 들을 열거한다. 그때 삶은 현실의 언어처럼 구체적이고, 그런 경험은 뭇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질감의 요소이다. 그러나 그 살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의 ‘삶’에 대한 각성된 통찰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지닌 상대성을 초탈하게 한다.

저자인 지안 스님은 “시는 결국 운문인데,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 대승경전의 거의 절반은 운문”이라며 “따지고 보면 옛 선사들도 한시를 쓴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안 스님은 “이번 시들은 ‘반야 오솔길’ 이라는 내 카페에 올린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인데, 사유적인 글들이 많아 독자들에게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언어를 찾아내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지안 스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김재원 시인(여원뉴스 회장)은 스님의 시집을 읽고 이렇게 평했다. “시로 전한 메시지는 스님의 법문보다 더 무겁고 날카롭게 그러나 절절하게 가슴을 긋고 지나갔다. 짧은 시구(詩句)마다 담겨 있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거의 용광로라 할 만큼 뜨겁고 겁나는 에스프리가 서늘하고 맑은 시어(詩語)로 정리되어 있어서다”라고. 그리고 김 시인은 한마디 더 덧붙인다. “스님의 시들은 잠 안오는 밤마다 꺼내서 다시 읽고 싶은 시어들로 가득하다”고.

문학평론가인 정효구 충북대 교수도 시 해설을 통해 “지안 스님의 시집을 청취하는 동안 산중과 사하촌을 연결하는 불가의 많은 다리들을 떠올렸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불가의 다리들은 이쪽과 저쪽을 표나지 않게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의 길”이라며 “스님의 이번 시집도 이런 든든하고 편안한 불가의 다리와 같다. 시와 도를, 세상과 산중을 한 자리에 무사히 앉힌 고승의 무르익은 시법(詩法)이자 시어(詩語)”라고 극찬했다.

책속에 소개된 100여 편의 시들을 읽고 나면 깨달음의 사유가 가득한 작은 소경전을 읽은 것 같은 기분좋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
반야심경 제대로 공부하기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은 방대한 600권『반야경』의 정수를 간략하게 260자로 압축한『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광준 지음/국판변형/184쪽/값 12,000원

선어록의 백미·어록의 왕!
임제어록 역주
한국 선종의 원류를 만나다! 거침없는 말과 파격적인 언어로 선불교에 새로운 획을 그은 임제 의현의 선풍과 종지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임제의현 저/강승욱 역/신국판/512쪽/값 27,000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리둥절 깨달음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궁극의 행복은 얻을 수 없다. 한 젊은이가 붓다의 ‘무상’과 ‘무아’를 자각하며 자유인이 되는 과정을 수필처럼 그려냈다.
고정해 지음/국판변형/204쪽/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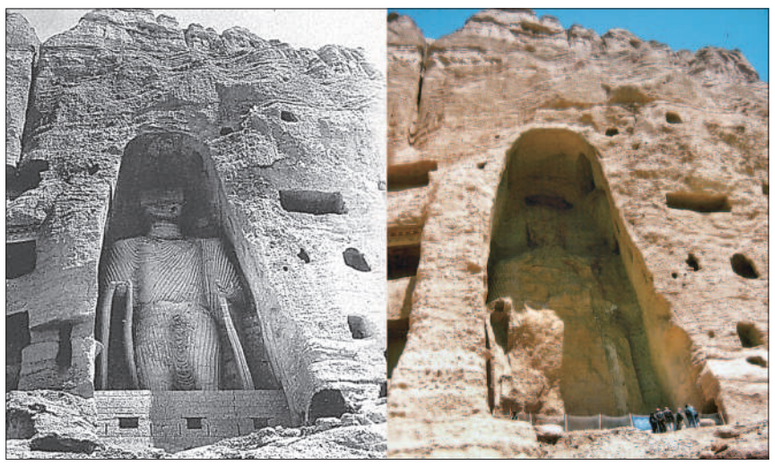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바미얀 대불 파괴 비극, 재현되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재집권으로 위기 처해

이슬람 근본주의 하 반달리즘 확대 우려 2001년 바미얀 파괴

박영빈 객원기자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석불의 파괴 전 모습과 파괴 후 모습. 사진출처=위키디피아

20여 년 만에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산재한 불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8월 14일,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은 탈레반 치하의 불확실한 유물의 안전에 대해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천 년 동안 중요한 무역과 문화의 교차로로서 불교를 비롯해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도래하기 전 아프가니스탄은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가 번성했으며, 불교사에서는 초기대승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로 중국 현장법사의 기록을 비롯해, 〈왕오천축국전〉 등 다양한 고대기록이 남아있다. 최근 수도인 카불 인근인 메스 아이낙(Mes Aynak) 유적지에선 7세기경에 작성된 패엽경 사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풍부한 불교유물들이 탈레반 재집권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2001년, 탈레반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미얀 석굴사원 대불을 비롯, 자한 아바드 마애불 등 불교유적과 유물을 파괴한 전적이 있다. 심지어는 같은 해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이던 간다라 시대 불상들도 철저하게 파괴했다.

모하메드 파힘 라히미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장은 "잊힌 역사지만 아프가니스탄 문화사에서 불교 위상은 매우 높다"고 말하며 "박물관의 유물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은 과거 파괴된 불상들을 폐기하라는 탈레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수장고에 파편들을 보호해 왔다. 미국 철군 전에는 미국 지원으로 불상들의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탈레반의 보복이나 재훼손에 대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고고학연구소장 누르아가 누리 박사는 "이렇게 빨리 탈레반이 재집권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물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타 지역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수도 카불로 옮기려 했으나 정부의 저항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립박물관과 고고학연구소 측은 "여러 방법을 통해 탈레반 점령하의 박물관과 연구소들과의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직원들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유적지와 박물관, 유물들에 대한 현황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레반 지도부는 공개성명에서 "고대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에 대해 엄중히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탈레반 추종자들에게 "모든 유적지들에 대한 불법적인 도굴을 중단하고, 미술시장에서의 유물판매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아메리칸대학의 오마르 샤리피 교수는 "사상을 앞세워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탈레반은 매우 위험하고 급진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며 유물과 유적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기금을 받은 연구자들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언했다.

현재 탈레반 측은 박물관들이 소장한 불교유물들을 비롯한 고대 유물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100여년 만에 돌아온 불두

중국 천룡산 석굴, 일본 경매에서 환수



100여년 만에 귀향한 천룡산 석굴 제 8굴 불두. 사진출처=신화통신 유튜브 캡쳐

중국 샨시성(山西省) 천룡산 석굴에서 100여 년 전 도난당한 불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석굴에서 도난당해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중 다시 돌아온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8월 1일, 중국의 '신화통신' 과 'AFP통신' 등의 외신들은 이를 특별보도했다.

샨시성 타이위엔(太原)시에 소재한 천룡산(天龍山)석굴은 기원전 386년 북조시대에 시작되어 약 200년간 당나라 때까지 조영된 불교석굴사원이다. 현재 25개굴 500구의 불상이 현존하고 있으며, 당나라 불교조각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21굴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조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은 중국의 국보에 해당하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에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신화통신 측은 "천룡산 석굴은 1920년대 대대적으로 도굴당했으며, 전체 불상의 절반가량인 240여구 이상의 불상이 피해를 입었다. 소형 보살상의 경우 통째로 석벽에서 뜯겨 나갔고, 크기가 큰 경우 불두만 잘려 나가는 등으로 도난됐다"고 전했다. 현재 천룡산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진 불상 중 150구 이상이 해외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환수된 불두는 제 8굴 북벽의 불감에 봉안되어 있던 본존 마애불의 불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 8굴은 수나라 때 조영되었으며, 풍만한 몸매와 각진 둥근 얼굴 등 당나라 불교조각의 선구적인 형태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석굴이다.

중국 국가문물국에 "해당 불상은 1924년경에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로 33.7cm, 가로 30.4cm, 높이 44.5cm, 무게는 55.5kg 실측됐다. 재료는 주로 석영과 방해석이며 이는 천룡산의 지질적 특징과 일치한다"고 불상의 정보를 밝혔다. 또한 "정수리와 귀에 채색의 흔적이 발견돼 원래 채색된 불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의 눈에 띄는 훼손이나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환수된 불두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 도착, 베이징 루쉰 박물관에서 열린 환수기념 특별전에서 공개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무명초가 없어도 샴푸를 쓰세요

日, 스님전용 샴푸 발매

스님들, 평소 비누사용해 두피보호 초점 개발 진행 거품 에어로졸 형태 지녀



스님전용으로 나온 샴푸가 화제다.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출가의 상징으로 삭발염의를 말할 정도로 삭발한 머리는 출가한 스님들의 상징이다. 그러나 스님들의 삭발한 머리를 위한 샴푸라는 독특한 상품이 일본에서 출시돼 화제다. 8월 11일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 '비즈스파' 등은 스님들을 위한 전용 샴푸의 개발과 발매에 대해 보도했다.

샴푸를 개발한 곳은 대머리와 탈모환자들을 위한 샴푸를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회사 '밀리언 해피니스' 다. 밀리언 해피니스의 대표이사 카네다 노리유키는 "이번 상품은 기존의 상품과는 다르게 발모나 육모효과는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머리를 씻는 샴푸"라고 설명했다. 카네다 이사는 "대머리나 탈모, 혹은 삭발을 헤어스타일로 고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샴푸를 개발하는 회사이기에 스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다. 그러던 중 스님들께 '머리카락이 없으니 샴푸를 쓰지 않고 일반 세안비누나 바디샴푸 등으로 머리를 씻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간 정말 그것으로 괜찮은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며 스님 전용 샴푸를 개발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카네다 이사는 "초기 연구단계에서 두피와 신체의 다른 피부의 질이 다른 것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두피는 머리카락으로 햇빛이나 공기로부터 보호 받고 있기에, 머리카락이 없으면 그만큼 외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의 연구에 따르면 삭발을 한 스님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두피에 외부자극이 가면서 끈적임, 기름기, 냄새 등의 문제가 쉽게 유발된다는 점이 발견됐다.

개발에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직접 참여, 혹은 협력했다. 카네다 이사는 "제작자로서는 재미있는 상품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시장성에 의문이 있었기에 함께 상품을 개발한 제약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 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스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샴푸의 거품이었다.

일반적인 액체 샴푸는 머리카락과의 마찰로 거품이 일면서 세정이 이뤄지지만, 스님들에게 액체샴푸는 세정효과가 떨어진다. 여기에 "샴푸의 거품이 없으면 뭔가 씻은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진한 거품이 발생하는 에어로졸 형태의 샴푸가 탄생했다. 시제품을 사용한 스님들은 "지금껏 이런 상품을 기다렸다"며 호평을 전했다.

샴푸와 함께 두피에 바르는 로션도 함께 개발됐다. 개발사 측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온라인판매만 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더 많은 미용업소 등에 배치하고자 한다"며 계획을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호주, 캄보디아 승려 횡령으로 해임

무죄 주장에 8월 13일 법정서 판결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교외에 위치한 토마스타운의 캄보디아 불교 사찰 주지가 해임됐다. 8월 13일 뉴질랜드 다중 플랫폼 뉴스 '뉴스허브' 는 주지인 호우트 체트의 해임 소식을 전했다. 호우트 체트 스님에게 걸린 혐의는 보시금 횡령과 파계행위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호우트 체트 스님은 지난 2012년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건립한 대표적인 불교사찰인 '크메르 불교협회' 본부 사찰의 주지로 임명됐다. 그러나 최근 스님에게 여러 구설수와 논란이 일면서 이사진과 대중들의 회의를 거쳐 주지직에서 해임됐다.

크메르 불교협회 측은 "호우트 체트는 승단의 허가 없이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찰의 보시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횡령한 보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출가자로서 율장에서 금지된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됐다"고 폭로했다. 협회 측은 횡령된 보시금의 일부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쪽이든 승단에서 추방하고 멸빈할 수 있는 증거라고 전했다.

호우트 체트 스님은 이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멸빈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적 공방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결국 법정이 주지직 해임을 인정함으로써 종결됐다. 협회 측은 법정에서 사찰회계를 근거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스님은 3개의 개인 계좌를 통해 보시금을 가로챘으며, 심지어는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지급된 복지수당이나 고용유지 지원금마저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판결을 내린 멜버른 지방법원의 가드판사는 "호우트 체트가 더 이상 크메르 불교협회에서 종교적이거나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사찰에 거주 또는 잔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국 최초 최고 불자명품 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하반기 신입생 大모집 유튜브 강좌 개강

| 입학식 / 개강 특강 | 2021년 9월 6일(월) 오후7시 |

– 신규탁 교수의 벽암록 –

정 규 과 정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유튜브 강좌 병행)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학장 스님)

■ 불교엘리트 1기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금강경 (前 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 벽암록 (3개월, 월 · 수 / 각 30분)
●선종의 최고 과목

■ 화엄경 (6개월, 화 · 금 / 각 60분)
●교종의 최고 과목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승려연수 인증교육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조계종 승려 50명)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고달사, 韓선종 · 천태종 발전에 기여”

동국대 불교학술원, ‘고달사지 역사성’ 주제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여주 고달사지가 선종사찰에서 천태종 사찰로 전환되며, 선종과 천태종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이 8월 10일 여주 신륵사 강당에서 ‘고달사지의 역사성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여주 신륵사(주지 법성)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 교수는 ‘신라~고려시대 고달사의 변천과정과 불교사적 위상’을 통해 고달사의 변화를 주석 고승들의 행적을 통해 분석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고달사는 9세기 중엽에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원감대사(圓鑑大師)가 개창하여 신라 말기 주요한 선종 도량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곳에서 수학한 여러 선승들이 전국에서 선법을 홍포했다.

후삼국 시기 전란 과정에서 고달사의 사세는 일시적 쇠퇴했지만, 고려 초기 원감대사의 법손인 원종대사가 주석하면서 다시 주요 선문으로 부흥했다. 고려 왕실도 고달사를 ‘부동선문(不動禪門)’으로 지정해 그 선풍이 이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고달사는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종 도량에서 천태종 도량으로 변화한다. ‘선봉사대각국사비’에 따르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1101년 천태종을 개창할 때 고달사는 산문 전체가 천태종으로 전향했다. 이후 고달사는 천태종을 구성하는 여섯 산문의 하나로 고려 말까지 천태종의 주요 사찰로 기능했다.

당시 천태종으로 전환된 기존의 선종 사문들은 모두 천태종의 근거지인 중국 절강성 지역에서 유학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계승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고달사의 중창주인 원종대사는 중국 유학 중 천태산과 절강성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거돈사와 영암사에 각기 탑비가 세워진 원공국사와 적연선사 연준은 절강성에 있던 오월국에 유학해 연수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다.

최 교수는 “중국 절강성 지역은 천태종의 영향이 강했고, 이곳의 선종 승려들은 천태종과 활발히 교류하며 그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에 유학했던 승려들 역시 천태종에 익숙하였고, 그들의 후계자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고달사, 신라시대 선종으로 시작
고려代 천태 전향… 中과 차별성
고달사지 미술 · 보존정책도 조명



여주 고달사지 전경. 고달사는 신라시대 창건돼 선종 도량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12세기 들어서 천태종 사찰로 변화했다. 이는 고달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고달사가 한국 선종과 천태종 성립과 참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봤다. 그는 “고달사는 우리나라 선종과 천태종의 성립과 발전에 모두 중요하게 참여했고, 이는 다른 사찰과 구별되는 고달사만의 특별한 성격”이라고 강조하며 “고려의 천태종은 일찍이 중국 절강 지방의 천태종에 접했던 선종 승려들이 선종의 전통을 유지한 채 집단적으로 전향한 것으로, 중국 천태종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은 ‘고달사지 승탑과 탑비의 특징’을 통해 현재 전해지는 ‘고달사지 승탑(국보)’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보물)’, ‘고달사지 원종대사혜진탑비’의 특징들을 살폈다.

박 실장은 “고달사지에 있는 두 기의 승탑은 ‘원종대사탑비’ 귀부이수의 조각 양식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국보로 지정된 ‘고달사지 승탑’이 원종대사의 승탑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다른 1기의 승탑을 원감대사 현욱의 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혜목산 사지나 고달사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이뤄져 더 많은 단서들이 축적돼야 일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만홍 국토문화재연구원 팀장은 ‘고달사지 공간 구성과 정비방향’을 통해 시기별 사찰 공간 구성을 분석하고 향후 보존 방향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사지 정비 방향에 대해 박 팀장은 “고달사지 주변은 숲이 잘 조성돼 있으며,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곳에 위치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장소”라며 “고달사지와 주변 혜목산에 위치한 다른 문화재들과 연계되고 탐방 동선이 설정된다면 고달사지의 사역은 광역적 의미에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심준용 A&A문화연구소 소장(건국대 세계유산학과 겸임교수)은 ‘여주 고달사지의 체계적인 활용에 대하여’를 통해 고달사지와 관련 문화유산의 활용과 운영계획 등을 살폈다.

심 소장은 “여주시청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고달사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고달사지 활용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기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박물관, 전시관 등의 건립이 가능하다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학술적 성격이 강한 박물관 등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광자원화가 목표라면 방문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트렌디한 공간 구성이 주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술 발표 이후에는 이승연 경기도박물관 학예사,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조 교수는 여주 신륵사, 고달사지를 묶는 ‘여주 불교투어 패키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달사지 복원에 조계종과 한국불교 종단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백제’로 시작하는 2021 세계유산축전

부여 · 익산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서 8월 29일까지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10월 17일까지 ‘2021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 지난 8월 13일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4곳의 문화유산 거점에서 각각 다른 일정으로 개최하는 이번 축전의 첫 행사는 공주시 · 부여군 · 익산시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축전-백제역사유적지구’이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게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세계유산축전은 국내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찾는 국 · 내외 관람객들을 위해 세계유산을 무대로 한 각종 전통공연과 체험, 재현행사,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등을 마련하는 문화재 활용행사이다.

유적지 중 하나인 부여군의 정림사지에서는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전기간 동안 열리는 ‘백제역사의유적지구의 OST, 백제 풍류가’는 5개 팀의 뮤지션(김보경, 안녕바다, 여행스케치&마로니에, 조엘라)이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음악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대여해주는 개별 청취기기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유적지를 거닐어 보는 시간이다. ‘설치미술전 백제의 꿈’은 10명(팀)의 작가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공간에 부합하는 시각예술작품을 창작하고 각 유적지에 설치하여 대중에게 선보이는 아트프로그램이다. 8월 28일 오후 8시에는 1400년 전의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특별공연 ‘다같이 백제로’가 열린다.

정림사지는 사비시대 수도의 중심 사찰이었던 정림사 옛터이다. 정림사지에 남아 있는 석탑(국보 제9호)에는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역사가 새겨져 있는데, 이로써 정림사가 백제 왕조의 명운과 직결된 상징적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익산시에 속한 유적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축전기간 동안 열리는 ‘설치미술 백제의 꿈’에서는 출토유물 조형물 전시와 만들기 체험을 통해 백제를 배운다. 미륵사지에서 열리는 상시전시에서는 백제 문화의 위대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설치미술품을 선보인다. 백제출토유물 응용전시품을 이용한 포토존도 운영한다. 금, 토,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체험부스(사전예약 30명)에서는 랜턴형 사리장엄구 백제문양 부채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미륵사지에서 8월 29일 오후 8시에 열리는 ‘다같이 백제로(路)’는 종합예술공연으로, 오케스트라와 시민합창단의 콜라보 공연과 미륵사지 창건 역사를 담은 공연, 익산 대표 무형문화유산인 이리농악과 지역 예술인들의 콜라보 공연이 열린다. 참가 인원은 사전예약 100명, 현장등록 300명이다.(041)630-2935.

익산시 금마면 표고 430m의 미륵산 아래 넓은 평지에 펼쳐져 있는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르 꼬르동 블루, 사찰음식에 빠지다

문화사업단, 올해 첫 정규강의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이하 문화사업단)이 르 꼬르동 블루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문화사업단은 “8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제2차 정규강의를 끝마쳤다”고 8월 19일 밝혔다.

앞서 문화사업단은 주영국한국문화원 및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도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의 ‘채식 전문 조리 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에 사찰음식 정규강의를 총 2회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에는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이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과 함께 봄 제철 음식을 주제로 쑥 버무리, 취나물, 고수전 등의 조리법을 제1차 정규강의로 진행했다.

김치와 여름 제철음식을 주제로 이뤄진 이번 제2차 정규강의도 법송 스님이 맡았다.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스님이 화상회의시스템 줌으로 요리 시연을 하면, 런던캠퍼스 학생들이 이를 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총 3시간 동안 이뤄졌다.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이 조리 시연을 완료한 사찰음식 앞에서 온라인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은 “앞으로도 문화사업단은 전 세계 여러 교육기관 및 학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식문화인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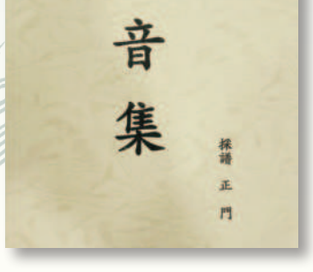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구암스님 범음집



영남법음범패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다시보는 불모지 ❷ 불자 연예인 · CEO들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불교 유치원 출신 아이돌 아시나요

연일 배우 윤여정 씨 수상 소식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윤여정 씨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직업병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만 그렇지는 않죠? 좋아하는 연예인과 자신의 종교가 일치하는지 인터넷 검색 한번 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도 불자였네" 불자 연예인 특집입니다.

불자 연예인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줄줄이 나옵니다. 배우 강부자, 나문희, 김혜옥, 고두심, 장동건 씨부터 개그맨 강호동, 이수근 씨, 가수 김흥국 씨 등등 정말 많죠.

사실 불자 연예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 워낙 방송가가 기독교계가 장악해서 그렇다 등등 확인 안 된 루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불자임을 밝히는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호동, 이수근 씨 등은 워낙 불자로 잘 알려졌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찐불이니 논외하고요.

일명 별명이 '유느님' 인 국민 MC 유재석. 원래 종교가 불교였는데 부인이 독실한 개신교라서 개종을 했느니 등등 루머들이 많았는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특정 종교 신자라는 소문이 돌았죠. 코로나19 유행 이후 문제가 된 기독교계 한 종파의 신자였다는 루머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종교가 불교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연예계를 이끌어 가는 건 아이돌 그룹입니다. 아이돌 중에도 자신이 불자임을 밝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그룹 '오마이걸' 승희 씨는 스스로를 '부태(父胎) 불자'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아버지가 완전 불자이랍니다. 승희 씨 본인도 춘천 소재 불교유치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반야심경〉 봉독이 가능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븐틴 승관과 서로 불교유치원 출신이라고 서로 반가워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능프로그램 '괴팍한 5형제' 의 한 장면. 불교유치원 출신 승관(세븐틴)과 승희(오마이걸)이 합장 인사하고 있다.



걸그룹 구구단 하나 씨도 자신이 불자임을 당당하게 알렸습니다. 2016년 BBS 불교방송 트위터에 트윗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평소 하나 씨의 별명은 '하나님' 입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도 종교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사진 옆에 포스트잇으로 "하나님, 종교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에 하나 씨는 '불교' 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팬들은 반전이라고 놀라워 했습니다.

한때 교회, 성당 오빠 관상 1위로 꼽혔던 엑소의 수호 씨도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오빠가 아닌 '절 오빠' 라는 겁니다. 스스로도 교회 오빠보다는 절 오빠로 불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몇몇 예능프로그램에서 확인됩니다. 지난 2019년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출연 당시 진행자가 "팬들에게 교회 오빠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실제 신앙심이 돈독하냐"라고 물어보자 "사실 자신은 불교"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 멤버에서 이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형식 씨도 불자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라고 합니다. 한 매체의 인터뷰를 살펴보니 "어머니가 항상 자신을 위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다. 자신의 일이 잘 되면 어머니가 '평소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일이 잘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인지 군대 가상 입대 체험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 출연 당시에도 주말 종교활동에 불교 법당에 가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는 실제 출가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스님이 되어서 출가하는 것은 아니고 출가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빅스(VIXX)의 멤버 라비와 레오, 홍빈 씨, 2PM 찬성과 닉쿤 씨가 불교라고 합니다. 태국 출신인 닉쿤 씨인데 태국은 출가를 해보는 사람들이 많죠. 닉쿤 씨도 어릴 적에 태국에서 출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스의 홍빈 씨 경우에는 동자승 출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릴 적에 동자승 출가 생활을 오래 해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빈 씨는 시간이 날 때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동방신기 최강창민도 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 계획이냐' 는 질문에 "불교 신자라 절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연예인의 종교는 사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그래도 이젠 TV를 보다가 불자 배우, 가수, 아이돌 그룹 멤버가 나오면 좀 반갑지 않을까요?

은퇴 후 출가한 기업인은 누구?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유독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재계의 거물들의 부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돌아가셨고, 올해 초에는 신춘호 농심 회장이 영면했습니다. 이들 장례의 공통점은 모두 불교식으로 치뤘다는 겁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49재는 조계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49재는 진관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초 돌아가신 신춘호 회장의 49재도 조계사서 진행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집안은 원불교를 믿어오고 있지만,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불교 모임인 불이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신격호 회장도 한국에서 직접적인 신행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사찰 불사에는 많이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찰이 울산 울주군의 문수사입니다.

문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 마을의 한 아낙이 문수암에서 재복 있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고 그 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신격호 회장이었습니다. 이후 신격호 회장이 한국과 일본 경제를 이끄는 그룹의 총수가 됐을 때 모친이 신격호 회장에게 문수사 중창불사를 요청했고, 아들은 이를 받아들여 크게 시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찾아보면 불교와 접점이 많은 기업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면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경호 거사는 동국제강을 창업한 인물인데요. 그는 요즘 말로 '찐불' 이라고 할 정도로 독실한 신심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장경호 거사는 27세에 되는 해에 통도사 동안거에 참여하고 난 뒤 이 같은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상업에 종사해 크게 돈을 벌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교에 바치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장경호 거사는 점심 한 끼 사먹지 않고, 용돈도 안 쓰면서 평생을 근검절약했고, 그 돈을 모아서 훗날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동국제강은 사람을 최고 자본으로 해야 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 잠깐 내게 인연이 있어 온 것을 맡아 관리할 뿐이다" 등의



일본 기업 교세라의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前 회장. 그는 은퇴 후 교토의 한 사찰에서 출가해 스님이 됐다.



장경호 거사의 어록에서 그의 불교적 경영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거사는 60대까지 매해 동안거를 사찰에서 보내며 수행했고, 평소에도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장경호 거사라는 장자가 있었다면 일본을 대표하는 장자는 단연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일본 기업 교세라의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前 회장입니다.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지만 이나모리 회장의 삶은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중학교 때 입시를 실패합니다. 설상가상 결핵까지 걸려 투병생활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공부해서 졸업하고, 대입 고시를 보는데 이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1차를 실패하고 2차 지방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 불황이 와서 취직이 원하는 대로 안됩니다.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데 이곳이 가족들끼리 경영 싸움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입사 동기는 다 떠나고 혼자 남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재난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있다"는 결핵에 결렸을 때 읽은 책의 구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미친 듯 연구에 몰두했고 최첨단 세라믹 제조 기술을 개발해 벤처기업을 창업합니다. 이 회사가 훗날 교세라가 됩니다.

300만엔 자본금으로 시작한 조그마한 사업체를 사원 5만 여 명의 대기업으로 만든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 모두 마음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정도 경영, 도덕 경영을 목표로 삼았는데 기업은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서는 안되고, 땀 흘려 번 이익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나 공격적 인수합병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경영에는 불교적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저서 〈카르마 경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돼 있으니 한번 찾아 읽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 회장직에서 물러 난 이후에 자신의 동경하던 스님이 되기 위해서 교토의 한 사찰로 출가했죠. 하지만, 2010년 파산직전 일본항공으로 취임해 1년 만에 매출을 흑자로 전환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영관을 불교와 접목한 기업인들도 있고, 신행 생활을 열심히 하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근현대 선지식 스님들과 인연이 있는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미원을 만들어서 한국의 조미료 시장을 이끌었던 대상그룹의 임창욱 명예회장 부부는 모두 독실한 불자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화 스님과의 인연이 깊었다고 합니다. 청화 스님이 조실로 주석했던 곡성 성륜사 불사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현대가도 불교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故 정주영 명예회장은 청담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었죠. 그의 손녀딸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자 도선사에서 49재를 지냈죠. 정주영 명예회장의 후계자 故 정몽헌 아산현대 회장도 49재를 도선사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무언가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만의 굳건한 철학이 있습니다. 장경호 거사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도 불교의 가르침을 자신의 경영철학으로 삼고 기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 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지금의 기업인들이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AIR BLASTING BY WOOD POWDER
에어대패 鉋
목분(木粉)을 이용한 신기술 건식공법!
* 목구조 건축물 복원의 신기술 "우드(목분)공법"은 원형복원과 목재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특화개발된 신공법입니다
* 문화재, 사찰, 단청, 한옥, 목구조물, 조경시설물, 특수건축물, 금속이나 비금속, 수지, 석재 등의 소재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년옻칠 漆
천연 옻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인증 천년옻칠
* 해충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방충, 방의, 방부)
* 목재의 크랙 및 변색방지 (방수성/방오성)
* 목재의 고유한색상을 더욱아름답게 유지합니다.
*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통기성)
동화특수산업(주)
031-451-6232 / 010-3747-2111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1

▶ **32회 예고**
웃자인 입성에 성공한 아쇼까는 아버지 빈두사라왕에게 보고서를 쓴다. 현황과 통치방향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리고 어머니 다르마 왕비와 아내 아상디밋따에게 편지를 쓴다. 군수부대 부대장 편에 보고서와 편지를 보낸다.



베디샤데비, 궁중연회서 아쇼까를 보다

오후에 갑자기 경비대장이 군마를 타고 베디샤데바 저택으로 달려왔다. 걸어와도 될 거리인데 군마를 타고 온 이유는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경비대장은 베디샤데바를 보자마자 미안해하는 얼굴을 했다. 베디샤데바가 물었다.

"저녁에 만날 텐데 왜 급히 왔소?"

"궁중연회를 내일 저녁으로 미루기로 했소."

"사정이 생겼소?"

"부왕님께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 하십니다."

베다샤데바는 아쇼까의 뜻에 따랐다. 그에게는 아쇼까의 뜻을 거스를 만한 이유나 권한이 없었다. 이제 아반띠국에서 아쇼까의 말은 곧 법이었다.

"오히려 잘 됐소. 부근 도시의 관리와 상인들을 초대해 모두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겠소?"

경비대장은 가까운 도시의 관리와 상인들이 부왕 아쇼까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궁중연회이기를 바랐다. 베디샤데바도 경비대장의 생각에 동의했다. 아쇼까는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궁중연회를 여는 것보다 하루 정도 늦추자고 경비대장에게 지시했던 것이다. 경비대장이 말했다.

"데바 수장님께서는 인근 도시의 상인들을 초대하고, 나는 파견나간 관리들을 부르겠소."

"내일 저녁이면 급히 서둘러야겠소."

경비대장은 접견실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베디샤데바는 궁중연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인참모들을 불러 여러 도시의 상인 수장들을 초대하라고 지시했다. 아반띠국을 통치할 새로운 부왕이 여는 첫 궁중연회이니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참석할 터였다.

베디샤데바 참모들은 즉시 말을 타고 북서쪽의 말와, 남서쪽의 수나빠란따, 동북쪽의 꾸루라가라로 달렸다. 특히 말와로 가는 참모에게는 아쇼까에게 후식으로 바칠 말와 고원의 망고를 가져오도록 당부했다. 말와 고원에서 수확하는 망고는 다른 지방과 달랐다. 껍질이 샛노란 망고는 크고 달콤한 데다 입안에서 스프처럼 살살 녹았다. 베디샤데비가 2층에서 내려와 데바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연회는 내일로 미루어졌다."

"아, 잘 됐어요. 웃자인 전통음식을 만들려면 한 나절이 필요했어요."

"그래? 한 나절이나 걸린다니 실수할 뻔했구나."

"달이나 바플라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웃자인 전통음식이라기보다 말와 지방 전통음식이 아니니?"

"맛있으니 웃자인뿐만 아니라 아반띠국 사람들이 다 즐겨 먹는 전통음식이 된 거죠."

"음식 만드는 데 솜씨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잘 아는지 몰랐구나."

"어머니께서 다 가르쳐주신 거죠. 저는 어머니 음식솜씨를 따라가지 못해요."

베디샤데바는 데비가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 순간 지그시 눈을 감았다. 베디샤나가르 농원 저택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아내가 생각나서였다. 데비는 2층으로 올라와 베디샤나가르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다음날 오후.

베디샤데비는 우두머리하녀에게 웃자인 전통음식인 달과 바플라 식재료를 챙기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우두머리하녀가 여러 하녀들에게 역할 분담을 시켰다. 한 하녀는 밀과 옥수수를 돌확에 넣고 쇠공이로 찧어 가루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하녀는 소금과 발효시킨 우유를 준비했다. 이윽고 우두머리하녀가 계피가루 같은 향신료와 소금을 넣고 반죽을 만들었다.

반죽이 다 되자마자 베디샤데비가 동글납작하게 빵 모양을 잡았다. 이후 네댓 명의 하녀들도 같은 크기의 빵을 순식간에 백여 개나 만들었다. 빵이 너무 작거나 큰 것은 베디샤데비가 따로 집어내 모양을 다시 잡아 숙성시켰다.

한편, 어린 하녀들은 마른 소똥을 통에 담아 화덕 옆으로 날랐다. 철판이 든 화덕은 마른 소똥이 타면서 열이 은근히 가해졌다. 베디샤데비가 먼저 열기가 훅 끼치는 화덕에 빵 서너 개를 넣었다.

"흰색이 황금빛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구워야 맛있거든."

빵을 기름에 바로 튀길 수도 있지만 베디샤데비는 구워내어 버터기름을 발랐다. 빵은 번지르르하게 윤이 나면서 더욱 군침을 돌게 했다. 하녀들도 나머지 빵들을 베디샤데비가 했던 대로 따라서 했다.

우두머리하녀는 백여 개의 바플라를 대바구니 상자에 담았다. 궁중연회장에 가지고 가려고 끈으로 묶기도 했다. 원래는 말와 지방의 전통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웃자인 전통음식이라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달 역시 웃자인 방식이 따로 있었다. 달을 만들 때도 베디샤데비가 우두머리하녀를 통해 지시했다.

"콩을 먼저 물에 넣고 푹 삶아야 해요."

전통음식은 베디샤데비가 우두머리하녀를 시켜서 시작했다. 약간 무뚝뚝한 우두머리하녀는 베디샤데비에게 지시받은 조리법대로 어린 하녀들을 부렸다. 하녀들은 말없이 움직이다가도 때로는 깔깔거리며 손을 놀렸다. 한 하녀는 버터에 다진 고추와 마늘, 생강과 고수에다 강황가루와 계피가루, 소금을 뿌리고 화덕에서 볶았다. 베디샤데비가 지켜보고 있다가 말했다.

"그만 하고 이제 삶은 콩을 붓고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야 해."

하녀 두 명이 주걱으로 저었다. 잠시 후 베디샤데비가 우두머리하녀에게 눈짓을 하자, 우두머리하녀가 사탕수수 즙으로 만든 설탕을 듬뿍 넣었다. 베디샤데비가 주걱을 든 하녀에게 말했다.

"묽지도 되지도 않아야 하니 불이 약해야 돼."



소똥을 화덕에 넣었던 어린 하녀가 재빨리 불이 붙은 소똥 몇 개를 빼냈다. 그러자 열기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노란 빛깔의 죽, 달이 완성되자 하녀들이 뚜껑이 있는 은제 사각의 큰 그릇에 담았다. 은제 그릇을 사용한 이유는 궁중연회장에서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미지근한 숯불 위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후식용 라두(Laddu)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다. 라두는 웃자인 전통음식이라기보다는 아반띠국이 생기기 전부터 인더스강 쪽에 살던 드라비다족 사람들이 아리안족에 밀려 내려오면서 웃자인 지역에 전해준 간식용 과자류였다.

베디샤데비는 웃자인 전통음식만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밖의 음식은 궁중요리사들에게 맡겼다. 궁중요리사들은 어제 수레에 싣고 간 채소류와 식재료들로 요리하고 있을 터였다. 또한 도살한 염소나 닭, 돼지 등은 끓는 물에 삶거나 훈제요리를 해두었을 것이었다.

왕궁에 다녀온 베디샤데바가 데비에게 다가와 말했다.

"왕궁에서는 연회에 나올 요리들이 다 준비됐더라. 너는 어떠니?"

"저도 달과 바플라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지금 왕궁 연회장으로 옮기자구나."

"아버지, 수레가 두 대 필요해요. 전통음식 한 대, 정오 무렵에 말와에서 가져온 망고까지 가져가려면 또 한 대가 더 필요해요."

"알았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가자구나. 왕궁을 몇 번이나 걸어서 왔다 갔다 했더니 다리가 아프구나."

이윽고 베디샤데바와 데비는 데바의 전용마차에 올랐다. 데비는 가슴이 설레면서도 '부왕님께서 맛있게 드셔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을 했다. 데비의 그런 마음을 눈치 챈 데바가 말했다.

"데비야, 최선을 다한 네 마음을 부왕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알죠?"

"음식은 맛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란다."

"어머니가 만드셨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가 봐요."

"걱정 마라. 좋은 연회가 될 것이니."

왕궁 정문을 검색 없이 통과한 두 사람은 궁중연회장으로 바로 갔다. 전통음식과 망고를 실은 수레는 두 사람을 따라왔다. 연회장 밖 정원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소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베디샤데비가 알고 있는 꾸루라가라에서 온 상인도 보였다. 베디샤데비는 마차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뒤 내렸다. 오후 내내 만든 전통음식을 아쇼까 부왕의 식탁에 따로 놓기 위해서였다. 아쇼까를 위한 식탁에는 이미 여러 육류와 채소류 음식들이 접시와 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다. 은제 주전자와 유리병에 든 포도주와 밀로 빚은 맥주도 있었다.

베디샤데비는 달과 바플라를 궁중 요리사들과 함께 아쇼까 식탁으로 옮겼다. 궁중요리사 우두머리가 달이 담긴 은제 그릇을 재빨리 삼발이 위에 놓았다. 숯불은 연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옮길 셈이었다. 달은 식은 것보다 따뜻한 상태에서 단맛과 향신료 맛을 더 내기 때문이었다. 데비가 가져온 말와 지방의 망고는 아쇼까 식탁에 서너 개만 놓고 중앙의 과일식탁에 수북이 쌓았다. 후식용 라두 역시 망고 옆에 한 접시만 차렸다. 이윽고 관리의 목소리가 연회장 정문 쪽에서 들려왔다.

"곧 부왕님께서 드십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 속히 입장해 주시오!"

아반띠국 여러 도시의 관리와 상인 수장들이 우르르 연회장 안으로 입장했다. 곧바로 아쇼까 부왕의 입장을 알리는 궁중악대 연주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아쇼까 부왕을 맞이했다. 아쇼까가 자리에 착석하자, 그제야 박수소리가 멎었다. 아쇼까가 다시 일어나 한 손을 쳐들고 말했다.

"마우리아국 빈두사라 대왕님의 명을 받아 아반띠국에 온 부왕이오. 아반띠국 여러분을 만나니 반갑소. 오늘 이 연회는 베디샤데바 상인 수장이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오."

건배사는 가장 나이가 많은 수나빠란따에서 온 상인 수장이 했다. 그리고 말와에서 온 관리가 지방 관리들을 대표해서 했다. 건배사의 내용은 서로 엇비슷했다. 아쇼까 부왕에게 충성하여 아반띠국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자는 내용이었다. 경비대장이 의도한 대로 충성맹세였다. 건배사가 끝나자 궁중악대가 흥겨운 연주를 했고 반라의 무희들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

베디샤데비는 아버지 옆에서 아쇼까 부왕이 무슨 음식에 손이 가는지 주시했다. 아쇼까는 궁중요리사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한 잔 하더니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이리저리 둘러보곤 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짙은 눈썹 끝을 살짝 움직였다. 도도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관심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쇼까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이윽고 베디샤데바 부녀와도 눈길이 마주쳤다. 궁중연회를 주관해 주어 고맙다는 뜻인지 눈웃음을 보냈다. 감격한 베디샤데바 부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부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아쇼까의 눈길은 다른 데 가 있었다. 가슴을 졸였던 베디샤데비는 겨우 마음을 진정했다. 그러나 잠시 후, 데비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데비는 바플라를 먹고 있는 아쇼까를 보면서 기절이라도 할 뻔했다. 아쇼까는 바플라를 하나 들고서 따뜻한 달에 찍어 먹고 있었다. 베디샤데바가 데비에게 주의를 주었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구나. 조심해라."

젓가락이 연회장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주위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베디샤데비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베디샤데비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을 붉혔다.〈계속〉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⑯ 고려 거사선풍의 출현과 정착

▶ 한줄 요약
선수행이 일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귀족계층에서도 교학불교와 더불어 필수적 수양과목이 되면서 거사선(居士禪)의 선풍으로 전개되었다.



선수행 일반화되고 居士禪으로 전개

한국 선종사에서 신라시대 및 고려 초기는 선법의 수입기 및 정착기에 해당한다. 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선법의 수입은 10세기 말까지는 중국의 선종오가의 전래가 있었고, 아울러 구산문의 형성과 그 전개가 이루어졌다. 그런 까닭에 10세기 말까지는 본격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선법의 수용이라는 특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후 고려시대에는 이것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선법의 전개가 출현하였다. 사굴산문과 가지산문의 전승과 함께 구산문의 면면한 전승, 문자선 및 간화선의 방법을 통한 새로운 선수행법의 도입, 지눌의 저술 및 순수어록의 출현에 따른 선문헌의 본격적인 전개, 선과 교의 관계를 비롯한 원상법(圓相法) 및 조동오위 등 선리에 대한 이해와 재발견, 〈직지심경〉 및 원대 전등사서의 수용에 의거한 전등법맥에 대한 인식의 정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선법의 이와 같은 발전과 더불어 이자현(李資玄)은 재가인의 신분으로 능엄선(楞嚴禪)의 수용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었다.

고려 중기에는 이전 천태종의 개창에 자극을 받아 선종 계통에서도 기존 산문의 성격을 벗어나 하나의 종파로서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고려 무인정권시대의 출현, 그런 와중에서 출현한 지눌의 역할로 말미암아 한국적인 선사상의 정립과 더불어 새로운 결사운동을 통한 선종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 것이다. 나아가서 지눌에 의한 송대 간화선의 도입은 혜심에 이르러 본격적인 간화선 위주의 선풍을 진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갔던 선법은 일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귀족계층에서도 교학불교와 더불어 수양과목으로서 선수행이 필수적인 교양으로 수용되면서 소위 거사선(居士禪)의 선풍으로 전개되었다. 그 연원은 중국불교에서는 멀리 남북조시대부터 황제 및 귀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왕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식자층의 필수적인 교양 내지 불교신앙의 성격을 지니고 널리 전개되었다.

한국선에서는 고려 중기에 진락공(眞樂公) 청평 거사(淸平居士, 1061~1125)로 불렸던 이자현으로 대표된다. 그는 당시 가지산문의 계승자였던 학일(學一, 1052~1144) 및 탄연(坦然, 1070~1159)을 비롯한 당시의 선승들과 교유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선풍을 다져나갔다. 그 기반은 〈능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능엄선의 흥기와 송대에서 수입된 간화선의 도입이었다. 더욱이 〈금강경〉을 애독하여 금강 거사로 불렸던 이오(李顥, 1050~1110)를 비롯하여 설당 거사(雪堂居士)라 불렸던 김부식(金富軾, 1075~1151)과 그의 동생인 김부철(金富轍) 등은 그 선구적인 사람들에 속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자현은 벼슬을 하다가 그만두고 청평산 문수원에 은거하면서 참선과 경전의 공부로 일관하였다. 그는 일찍이 〈설봉어록(雪峰語錄)〉을 읽고 그 가운데에 "우주법계가 그대로 모두가 눈[眼]인데 그대는 어디에 웅크리고 앉아 있겠는가"라는 대목에 이르러 깨침을 경험하였다. 이후로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의 어록 등 여러 가지 어록과 경전을 애독하였다. 경전으로는 〈능엄경〉을 중시하여 제자들에게도 권장하였는데,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근(根)·식(識) 등 칠대오입(七大悟入)을 통한 망념의 타파를 중시하고 그것을 통한 깨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일체의 존재가 여래장(如來藏) 아님이 없다는 교리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으로 25가지 원통(圓通)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이근원통(耳根圓通)은 이자현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이근원통은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으로서 소위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의 자성을 다시 돌이켜 관찰하는 수행으로 귀결된다. 원통의 수행법이란 25명의 성인이 각기 자신이 깨친 원통방편에 대하여 설명했을 때, 부처님의 지시를 받아 문수가 차례로 25명의 성인이 진술한 견해에 대하여 그 시비를 평가하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관세음의 이근원통이야말로 최상의 방편이라고 찬탄한다. 25가지 원통은 육진(六塵)과 육근(六根)과 육식(六識)과 칠대(七大)가 원통한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현이 항상 곁에 두고서 좌선수행의 방법으로 닦아갔던 25가지 원통수행이란 〈능엄경〉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육진오입(六塵悟入) 가운데서 성진오입(聲塵悟入)은 교진여가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사성제를 깨친 것이다. 색진오입(色塵悟入)은 우파니샤타 곧 진성(塵性)이라는 수행자가 부정관(不淨觀)을 관찰하여 무학도(無學道)를 성취하는 것이다. 향진오입(香塵悟入)은 향엄 동자가 두루 유위(有爲)를 관찰하다가 침수향이 타는 냄새를 통하여 무루지를 얻은 것이다. 미진오입(味塵悟入)은 약왕과 약상이 약초의 맛을 통하여 보살지를 얻은 것이다. 촉진오입(觸塵悟入)은 발타파라 곧 현호(賢護)가 때를 씻는 물을 통하여 무소유의 경지를 얻은 것이다. 법진오입(法塵悟入)은 마하가섭과 자금광 비구니 등이 육진이 모두 공적한 줄을 터득하여 멸진정(滅盡定)을 얻은 것이다.



춘천시 청평사의 이자현 부도

이자현, 능엄선 수용 안목 보여
좌선 수행을 25 원통으로 닦아
선승 교유로 독자적 선풍 다져
이오 · 김부식 · 김부철 등 부각

육근오입(六根悟入) 가운데서 안근오입(眼根悟入)은 아나율다 곧 무빈(無貧)이 요견조명(樂見照明)의 금강삼매를 통하여 얻은 지혜이다. 비근오입(鼻根悟入)은 주리반특가 곧 단도(繼道)가 출입식을 통하여, 설근오입(舌根悟入)은 교범바제 곧 우가(牛呵)가 혀를 통하여, 신근오입(身根悟入)은 필릉가바차 곧 여습(餘習)이 촉각을 통하여, 의근오입(意根悟入)은 수보리 곧 공생(空生)이 공성(空性)을 통하여 무학위를 얻은 것이다.

육식오입(六識悟入) 가운데서 이식오입(耳識悟入)은 보현보살이 심문(心聞)을 통하여 지혜를 터득한 것이다. 비근오입(鼻識悟入)은 손타라난타가 출입식(出入息)을 통하여 수기(授記)를 받은 것이다. 안식오입(眼識悟入)은 사리불이 심견(心見)을 통하여, 설식오입(舌識悟入)은 부루나미다라니자가 대변재(大辯才)의 음성을 통하여, 신식오입(身識悟入)은 우파리가 청정계율을 통하여, 의식오입(意識悟入)은 대목건련이 신통력을 통하여 아라한을 얻은 것이다.

칠대오입(七大悟入) 가운데서 화대오입(火大悟入)은 오추슬마 곧 화두(火頭)가 화광삼매를 통하여 아라한을 얻은 것이다. 수대오입(水大悟入)은 월광동자 곧 수천(水天)이 수성관법(水性觀法)을 통하여 동진(童眞)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다. 지대오입(地大悟入)은 지지보살이 비사사불을 위하여 땅을 평탄하게 한 수행으로, 풍대오입(風大悟入)은 유리광보살 곧 무량성(無量聲)이 시공을 관찰하여, 공대오입(空大悟入)은 허공장보살이 정광불(定光佛) 밑에서 무변신(無邊身)을 통하여, 식대오입(識大悟入)은 미륵보살 곧 자씨(慈氏)가 식심삼매(識心三昧)를 통하여 무생법인을 얻은 것이다. 근대오입(根大悟入, 見大悟入)은 대세지법왕자 곧 무량광(無量光)이 육근을 통하여 삼매를 터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근원통(耳根圓通)에 대한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부처님이 게송으로 보여준 설법에 잘 드러나 있다.

"그대들이 전도하여 듣는 바탕을 돌이켜서 듣고 있는 자성을 듣는다면[反聞聞自性] 그 자성은 최상의 도를 성취하는데 원통의 경우도 실로 그와 같다. 이것은 바로 미진불이 열반에 들어간 하나의 길이었다. 과거의 모든 여래도 이 반문문자성의 수행으로 이미 성취하였고, 현재의 제보살도 지금 각자 원명한 수행문에 들어가며, 미래의 납자들도 반드시 이 수행법에 의지해야 한다. 나도 또한 이로써 증득하였듯이 관세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처럼 〈능엄경〉의 경문에서도 이근원통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육근오입 가운데서 이근오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중생의 육근 가운데 이근방편(耳根方便)이 가장 뛰어남을 말하여 관세음보살이 원통대사(圓通大士)라 불렸다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다. 이자현은 바로 이 25가지 원통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스스로 수행을 통하여 몸소 깨침을 맛보고 그에 대하여 크게 확신을 지녔다. 이리하여 스스로 〈능엄경〉에 근거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선문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그 수행법을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이자현은 입적하는 날까지 몸소 〈능엄경〉을 강의하였다. 특히 왕명을 받들어 행한 〈능엄경〉 법회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몰려들었다고 전한다.

〈능엄경〉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경전으로서 그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 이후로 보인다. 의천은 1085년에 입송하여 화엄종의 대가인 정원(淨源)을 만났다고 한다. 송대에 〈화엄경〉과 〈반야경〉과 〈능엄경〉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기에 능엄대사(楞嚴大師)라 불렸던 장수 자선(長水子璿, 965~1038)에게서 〈능엄경〉을 배운 정원은 〈능엄경〉에 대하여 주석서를 남긴 사람이기도 하다. 이로써 〈능엄경〉의 위상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의천은 그 주석서까지도 널리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으로서 〈능엄경〉은 귀족계층 및 식자층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을 수가 있었다. 특히 〈능엄경〉이 지니고 있는 구성의 치밀함과 올바른 수행으로부터 나타나는 수행의 경지 및 잘못된 수행으로부터 나타나는 선병(禪病) 및 그 퇴치방법 등은 어느 경전 못지않게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로서 〈능엄경〉은 선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학을 공부하는 승려 및 사대부 계층에서 넓게 활용되어 사상적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측면에서 제기된 문성(聞性)과 견성(見性)의 문제는 조금이라도 수행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였다. 곧 견성은 망심(妄心)을 타파하고 깨침을 얻어가는 입장, 그리고 이와 상대적으로 진심(眞心)을 일깨워 확대해 나아가는 입장 등은 법계 모두가 그대로 깨침의 완성이라는 조사선의 전개와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일반 중생들에게는 널리 일체 존재가 여래장 아님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용되기에 충분하였다.

실제로 여래장의 사상까지도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능엄경〉의 입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남이었다. 이자현은 이와 같은 〈능엄경〉 사상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문수원(文殊院)이라는 가람의 형태에 그대로 구현해 두었다. 그리고 스스로 문수원의 구조를 통하여 늘 수행과 깨침과 그 보급에 널리 힘썼다. 이후 혜조국사 담진과 대감국사 탄연 및 권적(權適, 1094~1146) 등도 이자현의 영향을 받았다. 이자현은 자신이 크게 영향을 받은 선의 사상과 수행을 바탕으로 하여 〈추화백약공낙도시(追和百藥公樂道詩)〉·〈선기어록(禪機語錄)〉·〈가송(歌頌)〉·〈포대송(布袋頌)〉 등 다양한 시문집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동국대 HK교수〉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 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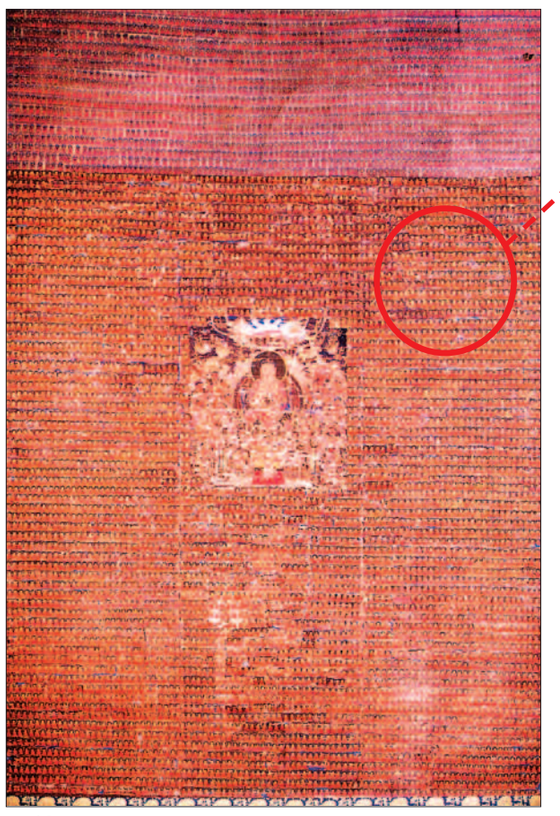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⑯ 비로자나삼천불도

▶ 한줄 요약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된 〈비로자나삼천불도〉는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있고, 주위에 약 8000구의 화불이 담겨진 고려불화다. 이 불화는 〈화엄경〉의 '일즉다 다즉일'을 도상적으로 볼 수 있다.



8천 화불로 장엄된 깨달음 세계

'온건히 깨달은 상태'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까? 탐진치(貪瞋癡)가 소멸되면 무엇이 남는가? 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는 마음'만 남는다. 주지하듯이, 이 '아는 마음'을 각성(覺性) 또는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인데 반응하지 않는다. 무색무취의 이 희한한 마음은 부동(不動)이다. 온갖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으나, 온갖 사물과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허공에 가득할 뿐이다.



그림①



그림②

고베博 보관 〈비로자나삼천불도〉
비로자나불 주위에 8천화불 담겨
지혜와 자비, 동체된 모습을 표현
〈화엄경〉의 '일즉다 다즉일' 의미

그림①. 그림1. 일본 다나카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불화 〈비로자나삼천불도〉.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 보관돼 있다.

그림②. 고려불화 〈비로자나삼천불도〉의 부분. 무량무변의 깨알 같은 화불들이 인상깊다. 그림 안에는 8000구에 달하는 화불들이 담겨있다.

깨알 같은 무수한 부처님들

이렇게 '허공에 가득한 불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놀라운 고려불화가 있다. 바로 〈비로자나삼천불도〉(일본 고베시립박물관 기탁보관)이다.(그림1)

약 20년 전, 일본 현지 조사 당시 고베시립박물관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요지는 "아무래도 한국 불화인 것 같은데, 급히 좀 봐달라는 것"이었다.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탄성이 절로 나왔다. 참으로 수많은 불화를 조사했지만,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매우 특이한 형식이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노랑과 빨강 점들이 화면 전체에 무수히 찍혀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 빽빽한 점들이 모두 깨알 같은 부처님들이 아닌가!(그림2)

화면 한 가운데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이 앉아 있고, 좌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그 주변으로 문수와 보현을 제외한 6대보살 · 사천왕 · 십대제자 · 팔부중의 성중이 에워싸고 있다. 비로자나부처님 몸에서 6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광배로 표현했고, 머리 위에는 커다란 천개가 드리웠다. 그리고 육계 보주에서 두 줄기의 서기(瑞氣)가 소용돌이치며 퍼져나간다. 그리고 주변 바탕으로는 뭉게뭉게 구름같은 서기가 한가득 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의 사각 구획 주변으로, 나머지 전체 화면을 메우고 있는 것은 무수한 작은 부처님들이다. 한 가운데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지권인(智拳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화면 가득한 무량한 화불(化佛)들이 결국 '모두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

8000구의 화불, 결국 '하나'

지권인이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두 손을 가슴에 하나로 모은 모습의 손 모양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다)'의 통합의 진리를 상징한다.

이 불화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법신불은 온 우주에 두루 편재(遍在)한다'는 것이다. 불성은 인간 · 동물 · 자연 · 바다 · 별 · 우주 등 일체 처처에 있는데, 그 불성(법신)과 대상(응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不二)'라는 것이다. 너와 나, 인간과 자연, 지구와 우주, 유(有)와 무(無), 안과 밖, 겉과 속이 일체이고, 일체가 불성이고 불성이 일체이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법신 · 보신 · 화신(또는 응신)은 하나"라는 '삼신귀일(三身歸一)'의 법칙을 설파한다. 물론, '불성의 편재'는 화엄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진리이겠다.

화면 가득 충만한 초미니 부처님들을 세어보니 약 8000구(軀)에 달한다. 현재 가로 95구의 화불이 세로로 84열 확인된다. 전체 불화가 세로 1m 96cm이고 가로 1m 33cm의 크기이니, 가운데 주존불의 구획(가로 · 세로 약 40cm)을 제외한 나머지, 즉 화면 면적의 약 70%가 깨알 같은 화불들로 매워져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제명이 〈일만삼천불도〉인 것으로 보아, 약 5000구의 부처님들이 더 있었을까하는 추정도 해본다. 불화의 보수 상태와 구전(口傳)된 제명으로 보아 본래 화폭의 크기는 훨씬 컸으리라 생각된다.

본 불화의 표현과 직결되는 〈화엄경〉의 '화장세계품' 내용 중에서 대표적 문구를 발췌하여, 불화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화장 장엄 세계의 무수한 띠끌 있네 / 낱낱 띠끌 가운데 법계를 본다 / 광명 속에 부처님이 구름 모이듯 / 이것은 온 세상에 자재하는 부처님이다.

또 무수한 작은 부처들이 비로자나(또는 노사나)의 변화신 또는 분신임을 강조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청정하신 비로자나 부처님 / 장엄을 갖춘 속에 그 모습 드러내고 / 변화 분신 무리 에워 두르고 / 일체의 세계해 모두 가득 채우네 / 존재하는 화불 모두 환영같아서 / 오신 곳을 구하여도 알 수가 없네 / 부처님 경계의 위신력으로 / 일체의 세계 속에 이렇듯 화현하시네

이렇듯 화장장엄 세계의 무대가 되는 향수해(香水海)에는 "화장세계의 비로자나(毘盧遮那)와 시방화불(十方化佛) 및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신통한 일들을 나타내셨다"고 한다. 즉 비로자나와 변화 분신의 화불이 일체 출현하는 장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동체'는 지혜, '대비'는 자비

다시, 글 첫머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깨달은 상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지금 그 상태를 '그림'으로 묘사한 작품을 보고 있다. 그러면, '글'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물론, 모든 불교경전과 모든 불교미술이 깨달은 상태와 그리로 가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겠다. 다양한 표현 중에서도 본 작품과 직결되는 부분을 선별하여 설명한다. 탐 · 진 · 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선종에서는 '바탕자리 또는 보는 놈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화엄경〉에서는 '법신과 계합했다'라고 한다.

아미타 신앙에서는 '본향(本鄕, 존재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또 철학자들은 '우주인식과 하나가 되었다'라고도 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동체대비(同體大悲)'라는 용어를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붓다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의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초기불전 〈붓다차리타〉의 '깨달음의 순간' 등에서부터 빈번히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동체'란 '깨달음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대비'란 '하나가 되자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성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 지혜와 자비를 말한다. 동체는 지혜(빤야)와 하나됨을 말하고, 하나가 되어 회광반조하니 만물이 나였고 내가 만물이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한 저들, 또 다른 나에 대한 안타까움(자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혜와 자비를 합치면 불성이 되고, 불성을 둘로 나누면 지혜와 자비가 된다. 불교미술에서 '지혜'는 '부처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자비'는 '보살' 형상으로 표현된다. 본 불화는 반야지혜와 동체가 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탐 · 진 · 치와 결별하면, 반야지혜와 '동체'된 마음만 남는다. 이러한 깨달음의 마음을 쉽게 '아는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저 '아는 마음'만 온 천지에 가득할 뿐인데, 그 존재 방식이 인간세계에서 결코 못 보던 거다.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여(如如)하게' 아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절로 튀어나온다. 여여하게 그냥 있다. 투명하게 아는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다. 부동(不動)의 마음, '부동지(不動地)'가 이것이구나! 인간 차원에서의 '아는 마음'인 '마노(mano)', 즉 '의(意)' 또는 '의식(意識)'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 널뛰듯 이리저리 매 찰나 오온(五蘊)으로 반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불성의 마음은 '부동'이고 '청정'하고 '여여'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정불성(無情佛性)'이라고도 표현한다.

안팎으로 대상을 비추어 알지만 결코 대상과 섞이지 않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모습은 연잎 위의 물방울에 비유되기도 한다. 맑은 물방울은 연잎과 함께 있지만, 반연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또르르 구른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석정수 스님
010-2766-7677
뻐꾹새 우는 북한산성 약사선원(명상센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박원자의 母情佛心 ⑯ 잇큐 선사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일본의 고승 잇큐 선사의 어머니는 고려에서 건너간 궁녀로 추정된다. 그녀는 아들 잇큐에서 따끔한 경책과 속히 출가해 불성을 깨닫길 바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남겼다. 훗날 이 편지를 읽은 조계종 前 종정 혜암 스님은 출가 발심을 하게 된다.

"속히 출가해 佛性을 깨닫아라"

생전에 '공부하다 죽어라' 는 명언을 남긴 조계종 前종정 혜암 스님(1920~2001)이 젊은 시절 일본에 계실 때다. 일제의 지배하에 있던 시절,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로 고뇌하면서 동서양의 책을 섭렵하고 있던 청년의 눈에 다음과 같은 편지글 한 장이 들어왔다.



그림 · 박구원

잇큐에게

나는 이제 사바세계 인연이 다하여 무위(無爲)의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나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너는 그 밝은 지혜의 눈으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항상 너와 함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진정 대장부라면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이 모두 너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책을 내려놓고 나가 사람들을 위해 일해라. 석가세존께서 사십여 년 설법을 하고서 단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네가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안다면 무익한 망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너의 어미가 9월 1일에.

이 편지는 일본의 유명한 선승 잇큐(一休, 1394~1481)의 어머니가 출가한 아들에게 쓴 편지로 일본 고승전집에 실려 있다. 그녀는 저 내용으로도 흡족하지 않았는지 추신으로 몇 줄의 글을 더 남겼다.

죄 많은 어미도 도를 닦지 못한 주제에 어려운 부탁을 너에게 하니 미안할 뿐이다.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런데 네가 방편에만 의지한다면 무지한 벌레에 지나지 않으리라. 설사 팔만대장경에 담긴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다 암송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너의 참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이 어미의 편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혜암 스님은 이 편지를 읽고 도를 닦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며칠 동안 밥을 굶었고, 급기야 출가를 결심했다고 한다.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내 맘속의 경전(한 물건, 본성)을 보지 못하면 내 편지의 뜻을 알 수 없을 것이라 했던 잇큐 선사 어머니의 글이 이국에 와서 생사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고뇌하던 청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혜암 스님은 훗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팔만대장경을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산다면 팔만대장경은 똥닦개나 고름 묻은 종이에 불과하다' 고 설파했다. 그리고 마음을 깨치는 공부를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수지맞는 일이라고 설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라 '이뭣고' 화두를 들으며 수지맞는 일을 선택했고,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 마음공부를 한 고승의 어머니 편지로 인해 일파만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잇큐 선사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일본 임제종의 고승이다. 그가 태어날 즈음 일본은 약 60년간 남북으로 분열된 남북조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의 아버지 고코마쓰(後小松)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2년 뒤 잇큐가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은 궁이 아니었다고 한다. 남조 출신의 어머니가 모함을 받아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훗날 분열을 염려한 황제의 가문에 의해 사찰에 보내져 5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고려에서 건너간 궁녀가 그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고려 말에 왜구의 침탈을 중재하기 위해 고려 왕실에서 일본으로 보낸 궁녀라는 것이다. 이 궁녀는 잇큐를 임신하고는 반대파들에게 납치되어 외진 마을로 유배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모자를 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아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절로 보냈다고 한다.

어느 것이 정설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잇큐의 삶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고려의 궁녀였다는 설에 무게가 더 실린다. 잇큐가 조선에서 건너온 화가 이수문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도를 전해 받았다고 하며, 고려의 다도에 선적 요소를 가미하여 제자에게 전수했고, 그 제자가 일본 다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센로리큐의 스승이 되었다고 한다. 센로리큐가 지은 건물이 교토의 대덕사 금모각인데, 그곳에 고려 16나한상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절에 살면서 자연스레 출가한 잇큐는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으나 공부에 진전이 없고 망상에 빠져 지내는 자신을 발견한 어느 날 자책감에 젖어 호수에 몸을 던졌다. 한 거사에 의해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자괴감은 깊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인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 잇큐의 어머니 남긴 유언 편지
> "방편에 의지하면 無知"를 경책
> 출가 대장부 바라는 모정 담겨
> 혜암 스님의 출가 발심 계기돼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진득하게 수행하세요."

어려운 여건에서 출가수행자가 된 아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온통 가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의 당부가 담긴 편지를 읽고 잇큐는 다시 발심하고 수행에 전념했다. 그리고 몇 년 뒤 앞에서 언급한, 혜암 스님이 보고 발심했던 내용이 담신 유서가 잇큐에게 전달되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의 저 간절한 편지를 읽고 발심을 해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잇큐 어머니의 편지를 살펴보면 깊이 마음공부에 통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나 조사들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오로지 자성을 찾는 일에 열중하여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당부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님을 보여준다. 황제의 아이를 낳고 궁에서 쫓겨 났으니 주변의 모해와 위험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간다. 그 온갖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식을 지키려는 것이 고금을 막론한 모정이다. 자식을 절에 보내놓고 자신도 마음공부를 했으리라. 출가 수행해서 부처가 되고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황제가 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임을 깨달았음이 틀림없다. 온갖 위험 속에서 아마도 수행자인 자식보다 더 치열하게 마음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았을 것이다. 자성을 깨달아 대자유인이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조사조차도 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잇큐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더 발심해서 정진했으리라. 해서 25세 무렵에 '동산 30방' 이라는 화두를 타파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몇 년 뒤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휴(一休)' 라는 그의 이름대로 마음을 푹 쉴 수 있었다고 한다.

잇큐는 일본의 반골기질의 선사로 통한다. 당시 타락한 불교계를 풍자하고 주지 소임을 잠깐 살고는 오랜 세월 만행생활을 했다. 그는 당시 혀끝으로 화두를 말하며 진리를 속이며 권력가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타락한 불교계를 보며 비판하는 시를 짓는 등 불교계의 쇄신과 다도(茶道)를 통한 선종의 대중화에 힘을 기울였다.

잇큐는 우리나라 신라의 고승 원효 스님과 비견될 정도로 대중들과 함께 어울렸던 스님이다. 긴 경책을 들고 수행자들을 깨우치고 다녔고, 주장자 끝에 해골을 매달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무상을 깨도록 했다. 노년에는 시각장애 여인과 살면서 사랑에 대한 정서를 시로 나타냈다. 그러함 때문인지 잇큐는 일본의 역사인물화에 자주 등장했다.

잇큐의 수많은 일화 가운데 하나다. 하루는 산길에서 떠돌이 스님이 그에게 시비를 걸며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다. 잇큐가 '여기 내 가슴 속에 있다' 고 하자 떠돌이 스님이 잇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며 정말 여기에 있는지 가슴을 열어봐야겠다고 했다. 그때 잇큐에게서 시 한 수가 흘러나왔다.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엔 벚꽃이 없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꽃이 피는가

그는 시에도 능했고,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우리는 모두
벌거숭이로 왔거늘
무엇이 부족

다음 그의 짧은 시 한 수는 마치 마음공부를 한 그의 어머니에게서 듣는 듯하다.

무상한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로 돌아오는 길에 쉬고 있으니/ 비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두어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듯, 그도 제자들에게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열어보라며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작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현실 잘 관찰하면 어디서나 法 발견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㉛ 법화사상

"득대세보살이여, 이 상불경보살마하살은 이렇게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 존중, 찬탄하여 온갖 선근을 심어서, 그 뒤에도 다시 천만억의 부처님을 만났고 또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며 공덕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바로 나였느니라. 만약 내가 과거세에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지 못했으리라. 내 지나간 세상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다른 이에게 설했으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었느니라.

득대세여, 그때의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는 화를 내어 나를 업신여긴 까닭으로, 2백억 겁 동안이나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며, 스님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천 겁 동안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다가 이 죄보를 다 마치고 다시 상불경보살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교화함을 만났느니라.

득대세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사부대중으로 항상 이 보살을 업신여긴 자들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여기 이 모임 가운데의 발타바라(跋陀婆羅) 등 5백 보살과 사자월(師子月) 등 5백 비구니, 사불(思佛) 등 5백 우바새들이었느니라.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었느니라.

득대세여,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마하살들을 크게 이롭게 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능히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여래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쓰고 해설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교법이 주로 인과법과 인연법으로 설해진다. 온갖 비유의 언사로 설해지는 부처님의 말씀이 인연법을 설하고 그 속에는 인과법이 들어있다. 〈법화경〉에서는 과거 생과 금생을 인과로 연결해 설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득대세 보살에게 한 말씀이 상불경보살이 바로 석가모니 자신의 전생 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삼세의 인과관계가 전생이 금생의 원인이고 금생이 전생의 결과라는 사실과 금생이 내생의 원인이고 내생이 금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은 불교 교리의 공식적인 정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삼세의 인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과거 어느 부처님 시대의 왕이나 왕자이야기, 또 수기를 주는 내용도 미래세의 성불을 보장하는 이야기이므로 삼세 인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상불경보살을 업신여기던 대중들이 1천 겁 동안 아비지옥의 고통을 받다가 죄보를 마치고 상불경의 교화를 받았다는 말도 생을 바꾸어 온 이야기다. 다겁다생으로 이어지는 생사의 반복이 업감연기로 설명되면서 인과응보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성불의 인연이라는 점을 이 대목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처님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과거세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법화경〉이 성불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말로 법화수행의 인과가 경전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말이다.

법화사상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는 그의 저술 〈법화현의〉에서 '즉사이진(卽事而眞)'이란 말을 자주 썼다. 이 말은 '즉사현리(卽事顯理)'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현실 안에서 이상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구체적 상황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이상적인 세계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화사상의 골자가 되는 말이다. 〈법화경〉의 사유체계나 그 세계관은 현실과 이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법화의 일승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현실의 상황을 잘 관찰하면 어디서나 참된 이치가 발견된다는 것으로, 현실과 이상은 괴리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달관할 수 있는 수행을 통해 이상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현실은 수행의 무대이고 이상이 실현된 것이 부처의 세계가 되며, 법화경이 수행의 무대이고 동시에 부처의 세계가 열린 것이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오신채부터 보살수행까지 큰 영향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㉛ 범망계(梵網戒)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에 정착된 보살계는 범망계(梵網戒)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가 보살계로 범망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가자는 오계를 받고서 보살계를 받으며, 출가자는 비구 · 비구니계를 받고서 보살계를 받는다. 또 고기나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않는 사찰음식 문화도 범망계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행해졌던 소신(燒身) · 소지(燒指) 등의 사신행(捨身行)도 범망계에 근거한 보살 수행이다. 이처럼 범망계는 오늘날까지도 재가자와 출가자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살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범망계는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망경(梵網經)〉의 하권에 나오는 보살계이다.

상권에서는 보살의 수행단계를 40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수행자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서 4단계에 각각 10항목씩 순서대로 수행해나가는 것을 설한다. 제1단계인 10발취심(發趣心)은 수행의 출발점이며, 제2단계인 10장양심(長養心)은 수행의 육성이며, 제3단계인 10금강심(金剛心)은 견고한 마음이며, 제4단계인 10지(地)는 수행의 완성이다.

이를 정리하면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는 보살 수행의 준비단계를 나타낸 것이며, 제4단계는 보살 수행의 완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가운데 제4단계의 10지는 〈화엄경(華嚴經)〉에 설해진 보살십지(菩薩十地)와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하권에는 보살이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가 설해지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가 설해지는데, 이것을 '범망계'라고 한다.

10중계는 10가지 무거운 계이며, 10중대계(重大戒) 또는 10중금계(重禁戒)라고도 한다. 원래 10중(重)이란 말은 율장에서 바라이죄(波羅夷罪), 즉 교단에서 추방하는 계목(戒目)에 해당되는 것이다. 〈범망경〉에서는 만약 10중계를 범하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계라고 설한다. 10중계는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에게 공통된 계이며, 이것을 범한다면 보살로서의 기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0가지 무거운 계는 10가지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①살생하지 말아야 하며[不殺生], ②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며[不偸盜戒], ③음행하지 말아야 하며[不婬], ④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며[不妄語], ⑤술을 팔지 말아야 하며[不酤酒戒], ⑥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不說四衆過], ⑦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不自讚毁他], ⑧내 것을 아끼려고 남을 헐뜯지 말아야 하며[不慳惜加毁], ⑨성내어 참회를 물리치지 말아야 하며[不瞋心不受悔], ⑩삼보(三寶)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不謗三寶].

48경계(輕戒)는 48가지 가벼운 계를 가리키며, 10중계에 비해 가벼운 것이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계는 아니다. 이 가운데 30가지 계는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지만, 18가지 계는 그렇지 않다. 재가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3가지 계이며, 출가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15가지 계이다. 따라서 48가지 가벼운 계는 대상에 따라 지켜야 하는 계가 조금씩 다르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세세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⑦ 괴로운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궁극적 의지처, 불성의 자신과 진리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진여본성 뿐이다

불자 여러분! 옛 도인들은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성인(聖人)들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당체는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진여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당체인 진여본성을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덕장을 갖춘 불성임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곳은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의 말법시대에 어리석은 이는 신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는 등 가상적인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의지해야 할 궁극적인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과 진리(法 · Dharm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依所)이다. 그런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마를 길들이듯이.(법구경 380)",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법구경 23권)"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실한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도 아난에게 참된 귀의처는 자기 자신과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아난다여, 여기에 스스로를 주(洲)로 하며 스스로를 의지할 곳(依所)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의지할 곳으로 삼지 말며, 법(法)을 주(洲)로 하며 법(法)을 의지할 곳으로 삼아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설하는 '주(洲)'는 'Dipa'의 번역어로 '강변', 또는 '뭍'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변해 가는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뭍은 언제나 그곳에 있듯이 변함없이 영원한 삶의 발판이 주(洲)인 것입니다. 한역에서는 이러한 '주(洲)'를 '등을 밝히다'라는 의미로 '등명(燈明)'으로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은 모두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밝은 빛을 얻게 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洲)'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또는 '자귀의 법귀의(自歸依 法歸依)'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 명예 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흐르지 않는 주(洲)와 같이 자기 자신의 참 나인 진여본성의 마음 당체와 영원한 진리에 의지할 것을 부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참 마음이 곧 부처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귀의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참된 마음입니다. 참된 마음이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입니다. 이 한마음의 당체(當體) 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해야 할 곳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스스로의 참마음이 부처요, 진리요,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우주의 근본주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망상분멸을 일으키는 중생이지만, 이 마음의 당체가 부처임을 믿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정진하며 마음을 정화시켜 본래 모습을 발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불자 여러분! 구름에 의해 가려진 태양일지라도 항상 빛은 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무명에 가려진 오염된 마음을 가진 중생일지라도 내 마음의 당체는 무량공덕을 갖춘 부처임을 믿으시고 스스로의 참된 성품을 발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참된 행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3호 | 17 | 전면광고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으며 늘 고요하고 잔잔하다. 마음에 평정을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속성 5개월 과정 •한문 몰라도 됨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공양주 모심
숙식제공
포천 천주사
• • •
010-3220-2915

• • •
공양주 모십니다.
양산 소재
• • •
010-3534-2378

易(역) 수강생 모집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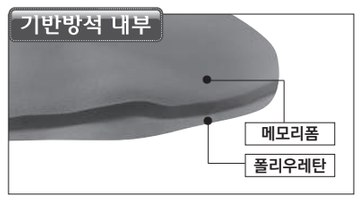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3호 | 18 | 전면광고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출요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 5거리 (당산나무옆 2층)
● 제반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 시설권리금 : 1천5백만(바로 법회 가능)
●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 부산 최고 명당자리
● 전시컨벤션 ● 복지시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불교용지760평, 대지800평, 전체 계획관리
● 대웅전, 연못, 요사채, 산신각, 대형휴게실, 대형 찜질방3개, 종각, 전각8채, 감곡천척역10분, 대웅전 대형 잔디광장, 요사채별장, 대형정원, 전원주택별장은 신축, 540평 건물, 정원연못, 생광석 찜질방 다양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 상담 : 이미정

010-5883-2255,010-3564-6881

사 찰 터 안 내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구 산30-3
● 임야 12,429㎡, 가액 1억 8천 8백이면 사찰 판넬로 건물 지어줄수 있음
● 농림지역, 전기, 도로 포장 되어있고 토굴, 암자터 최고, 두릅나무 심어져 있음

010-5454-8315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증금 1천만원/월세 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성 배 기 획

● 사찰·부동산 전문
● 급하신분
● 빠른부적
● 산신 도통 하실분

010-4490-3544
010-4912-354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암자·굿당 (급) 안내

● 위치 : 삼도봉 맞은편 경상도 쪽 형제봉 중턱 ● 대지 : 종교용지 250평 실사용 약 500평 ● 건물 : 한옥기와집 2채 약 60여평 새집 ● 정남향 폭포 계곡 사철물 콸콸 ● 도로 아스팔트 8m 대형버스 다님 ● 가격 보신후 결정 시세이하 저렴함 ● 주인 직접 부동산 일체 사절합니다.

010-5882-2452(총무님)
010-5807-2452(스님)

좋은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전철 역에서5분거리
● 토지670평, 국유림 야산아래 남서향 양지 밝은곳, 전망이 내려다보여 경치가좋음, 야산에 둘러싸여 조용함
● 가액 3억3천만원(평당49만원)
● 주인직접

010-3531-5562

양산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218평
● 건평 : 1층요사42평, 2층슬라브 42평중, 대웅전26평, 산신각
●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 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 건강상 싯가이하로 양도함
● 가격 : 절충

010-6425-8274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 보증금 1000만, 월세, 관리비 60만원
●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3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 건물 : 6동 외 미륵전
● 가액 : 18억

010-5330-859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제개장원(除蓋障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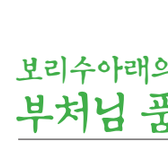


제개장원은 금강수원의 남방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금강수원이 대지(大智)의 덕을 나타내는 데 이어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제개장원은 중생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제거하여 선심을 일으키는 서원을 나타내고 있다. 개장(蓋障)의 번뇌(煩惱)는 5종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탐욕개(貪欲蓋): 욕심의 경계를 총칭.
2. 진에개(瞋恚蓋): 분노의 경계를 총칭.
3. 혼면개(惛眠蓋): 혼침(昏沈)의 총칭.
4. 도회개(掉悔蓋): 산란(散亂)의 총칭.
5. 의개(疑蓋): 의심의 총칭.

대일경소에서는 번뇌장(煩惱障)을 추가하여 업장(業障), 생장(生障), 법장(法障), 소지장(所知障)을 오장(五障)이라 하는데, 위와 같은 5장을 제거함으로써 불보살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⑮ 뇌병변장애인 고명숙 씨

동료상담, 자립 능력 발견하는 과정



늘 한몸처럼 함께하는 고명숙씨(사진 오른쪽)와 장애인활동보조사 김귀순씨.

뇌성마비인 고명숙 씨는 동료 상담가이자 동물보호 운동가다. 그녀가 SNS에 올리는 글 속에는 반려동물인 고양이 '우리' 와 토끼 '사랑이' 와의 따뜻한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를 함께 갖고 있어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김귀순 활동보조사 선생님의 지극한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녀는 전문적인 동물보호 운동가는 아니지만, 내면에 깔린 불교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녀의 미소가 한없이 아름다운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리라.

고명숙씨의 생명 사랑은 자신, 그리고 동료 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녀는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4단계로 중단 중이지만, 2020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편의시설 조사와 동료 상담을 겸하고 있다.

동료 상담은 주로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한 대목이다. 장애인의 자립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곧 자립인 셈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념은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서울 국제장애인 학술대회' 에서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가인 나카니시가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을 소개하면서 처음 전해졌다. 이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 의지를 갖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300여 개소가 있다.

고명숙 씨 역시 자립생활 정보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끈 당사자다. 그녀는 2001년부터 정립회관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정보를 접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그것이 이뤄지기 위한 요건, 과정이 참 본능적이고 참으로 타당하게 다가왔고 희망을 줬다.

그녀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양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결성됐다"며 "그 크나큰 노고와 성과에 큰 힘을 보태지는 못했지만, 할 일이 주어지면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동료 상담이 장애인 자립과 밀접한 이유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장애 동료를 카운슬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로 인해 차별과 억압,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료 장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치유인 동시에 성장을 이끄는 바로미터다. 나아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 동료 장애인과 함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 지지받음으로써 당사자 스스로가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장애인 자립의 첫 발이라는 설명이다.

정립회관을 통한 자립생활 정보 중에서도 특히 '활동보조 서비스' 는 장애인의 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부터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안겼다. 동시에 그녀가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동물보호 운동가로, 또 동료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고명숙 씨는 "활동보조사와 인연을 맺고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고 받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보다 주체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다 넓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소개받은 분야가 바로 동료상담이었다. 그녀 스스로 자립생활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배우고 이해한 터라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다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 또한 크다.

고명숙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사찰 내에도 장애인들의 신행과 수행을 도울 수 있는 템플스테이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농담 삼아 건넸더니 그녀와 활동보조사 선생님도 금방 공감을 해 한바탕 웃음이 번졌다. 모두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불자들이니 더욱 공감대가 컸을 지도 모른다.

그때 고명숙 씨가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의 일환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하던 중에 경험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어느 상점에 조사하러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출입구, 매장의 매대 사이 넓이 등 휠체어 접근권은 만족스럽게 되었는데 다만 진열장의 높이가 높아 휠체어를 탄 자신에게 불편했다. 그러나 점원이 친절한 응대와 안내를 해주면서 물건을 고를 수 있게끔 해주니 진열장의 불편함은 원만히 해결되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조금의 불편함 정도는 사람과 사람의 기분 좋은 소통으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며 "이는 사찰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은 주로 특정 분야에서 큰 성공을 했거나 이슈가 되는 특별한 사람, 혹은 보다 좋은 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활동가로 거리로 나오는 경우다. 하지만 더많은 장애인들이 고명숙 씨처럼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 성실히 살며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녀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듯이, 우리 불교에서도 이들을 사랑하고 편견없는 시선으로 따뜻한 배려를 해주길 바래본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귀병에 퉁퉁 부어오른
5개월 아기의 사투

쓰나미로 터전 잃은 기달씨 부부 첫 아이 유산 후 얻은 쌍둥이
2개월 만에 발병…간병 위해 휴직, 병원비만 매달 3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16 이븐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 한줄 요약
죽음 앞에서는 우리들 삶은 평등하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증명하다



이븐 알렉산더는…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 미국의 유명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어느 날 희귀한 뇌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인간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한 부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그는 거의 죽은 상태였고, 의사들은 모든 생명연장기구의 철수와 함께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눈을 번쩍 뜨면서 현대 의학이 판정한 죽음의 문턱에서 이승의 세계로 되돌아왔다. 그의 임사체험기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지닌 지식인은 물론이고 완전한 치유의 길을 찾는 일반 독자에까지 뜨거운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며,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놓고 있다.



뇌사서 7일만에 깨어난 신경과의사의 임사체험 삶과 죽음의 不二 전해

뇌막염으로 쓰러진 뇌의학자

과학자들은 대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운이나 여지가 남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뇌의학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븐 알렉산더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떤 환자가 와서 머리가 아프고 지각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MRI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종양이 발견된다. 전신마취를 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몇 시간 후에 환자가 깨어난다. 환자에게서는 이제 두통도 사라지고, 지각능력의 장애도 말끔하게 사라진다.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없이 깔끔한 일이다. 그는 의사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순함을 좋아했다. 과학과 의학의 절대적인 정직성과 깨끗함을 사랑했다. 과학과 의학은 공상이나 엉성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매료되었다. 과학에서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실만을 수용할 뿐,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버려지게 된다.

그는 당연히 심령술이라든가 영혼의 존재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다. 우리의 뇌가 부재하면 우리 자신도 깨끗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왔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임사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해 보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저편의 빛이 가득한 세계에서 죽은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신을 직접 만났다는 그런 임사체험담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격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박테리아성 뇌막염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발병한 지 며칠 내로 초기에 사망하지만, 다행히 응급실에 호송되는 경우에도 10퍼센트만이 운 좋게 살아남는, 치명적인 병이었다.

응급실에 있는 동안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으르렁거리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신음소리를 내던 그가 "갓, 헬프 미!" 단 세 마디를 외치고는 갑자기 잠잠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떠한 자극에도 완전히 무반응 상태가 된다.

뇌가 꺼져도 의식은 살아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몸이 '나' 가 아니라고 대답하기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팔이 없어져도 나이고, 하체가 없어져도 나이고, 사지가 없어져도 여전히 나는 나라 남아 있을 것이지만, 심장 박동이 멈추어도 과연 '나' 라고 할 만한 무엇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심장 박동까지 멈추었다고 할지라도 뇌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지작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나' 를 과연 살아 있는 누군가로 볼 수 있을까?

이븐 알렉산더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7일 동안, 그의 뇌는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라면 '뇌는 그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미가공 데이터를 의미 있는 세상으로 가공하는 일' 을 한다. 그런데 '뇌에서 바로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운되어 꺼진 상태' 였다.

내내 눈을 감고 있었던 그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눈을 뜨자, 그를 지켜보던 지인은 비명을 지른다. 사랑하는 그의 가족과 간병인들이 불가사의한 상황변화에 놀라 말문이 막힌 채 그의 침대 주위로 모여들고 있을 때, 그는 참으로 '평화로운 미소' 를 지으며 입술을 달싹거려 말한다. "다 잘 될 거야."

그는 말로써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깊이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반복한다.

"걱정하지 마. 다 잘될 거야."

그의 의식은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디를 다녀온 것일까? '뇌의 기능이 다운되어 꺼진 상태' 에서, 이븐 알렉산더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일주일 동안 그에게는 확실히 몸이 없었다. 적어도 평소에 그가 알고 있던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냥… 거기에 있었다. 언어, 감정, 논리가 모두 다 사라진 세계. 그러니 기억이나 자기 정체성 또한 있을 리 없었다. 그가 다녀온 저 세상의 풍경 또한 경험할 당시에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상태 자체였을 뿐이다.

뇌의 기능이 거의 다 정지되었을 때, 그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암흑인데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암흑.'

"진흙으로 완전히 뒤덮인 상황인데도 그 속이 훤히 보인다고나 할까. 어쩌면 지저분한 젤리 같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속이 들여다보이면서도, 흐릿하고 희미하고 밀실 공포증으로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마치 꿈속에 있을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세계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그곳에 있었을 때의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동물도 아니었다. 사람이나 동물 이전의, 그 이하의 어떤 것이었다. 그는 그저 시간이 흐르지 않는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주시하는 의식 자체' 였다.

우주자궁 속 사랑에 감싸여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질문을 생겨난 바로 그 순간,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무엇인가가 솟아나온다. '차가운 것, 죽은 것,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무엇' 이었다. 그는 스스로 '남은 평생 동안 노력한다 해도,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묘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 이라고 표현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포함된다.' 찬란하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에 그는 자신이 태어났다고 느낀다.

"나는 날고 있었다. 나무들, 들판, 시냇물, 폭포, 그리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보였다. 웃고 노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고 그들만큼이나 즐거워 보이는 개가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날아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어느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자. 그는 그녀와 함께 어떤 물체의 표면 위를 타고 있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생생한 색채를 띤 복잡한 무늬를 가진 나비의 날개' 였다. 사실은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그들 주변에서 날고 있었다. 나비들은 각기 별개로 노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몸이 되어, 마치 거대한 생명과 색채의 강물이 되어 하늘을 가로질러 날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본 순간, 그는 엄청난 위안을 느낀다. '그 눈빛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간에 어떤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진실로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고 느끼게 될 그런 눈빛. '로맨틱한 느낌은 아니었다. 우정의 눈빛도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넘어선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참되고 순수한,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어휘도 구사하지 않으면서 그녀는 말을 한다. 그 메시지는 바람처럼 그를 통과하고, 그는 그것이 진실임을 즉시 깨닫는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변의 세상이 덧없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는 그녀의 실체를 믿었고, 그녀가 말없는 말로 전해주는 모든 것을 진짜 진실임을 그냥 알아차린다. 그녀의 '말없는 말' 을 지상의 언어로 옮기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깊은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다. 평생 동안 풀지 못했고, 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 을 전수받은 것만 같다.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그는 결국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 모든 분리가 사라지고 없는 또 하나의 세상, '나' 라는 개별적인 자아는 분명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더욱 더 기쁨과 희열감이 넘쳐나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세상' , 자궁 속의 태아처럼 안락하게 느꼈던 저 세상에서 '뭔가 남은 할 일이 있어' 마지못한 듯 이 세상으로 돌아온 그는, '육체적 존재' 라는 아주 꽉 낀 옷 속으로 비집고 돌아온 듯한 불편함 속에서, 다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를 훨씬 더 깊고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게 된 그를 보고, 그의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빠가 어찌나 맑고 투명하게 느껴지는지, 마치 아빠 안에는 어떤 빛이 들어 있어서 바깥으로 비치는 것 같아요."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53 호 현대불교
2021년 8월 25일(음 7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지요

질문 요즘처럼 마음이 팍팍한 세상에서 마음공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아이구! 그거 정말 그럴까?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아예 믿질 않았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 못난 뿌리만이 못난 나무를 위해서 모든 거를 100% 다 해 주겠지. 우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이듯이.' 그러면서 지극하게 믿고, 부모의 제삿날인데도 차릴 게 없으니까 그저 보리죽을 쑤어서 죽 한 그릇을 부뚜막에 놓고, 물 한 그릇 떠 놓고, 향 한 개비 사르고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 뿌리, 엄마 뿌리, 내 뿌리', 하하하…, '세 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닌 한 뿌리니까 한자리를 하소서! 그러면 시장했던 모든 것이 한 떡으로 화해서 바로 양식이 되리다.' 하고 이렇게 그 부모를 위해서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별안간에 찾아와서 마름을 주더랍니다, 일 좀 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다 맡기고 가더랍니다. 그럭하다 보니까 아주 잘살게 됐더랍니다. 그 나중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랬는데 그 못 믿은 사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믿고, 그렇게 한 거를 아예 못 믿고 그런 사람은 못 믿는 것만큼 그렇게 살더랍니다. 즉 말하자면, 나무로 친다면 잎새가 단풍이 들면 떨어지듯이, 뿌리는 영원하지만 그 잎새는 그냥 떨어지고 없어지더랍니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사람은 가지가 돼서 추운 겨울에 발발 떨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자체가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아주 허다합니다. 똑같이 중병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완쾌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완쾌가 못 돼요. 그게 누구의 탓입니까? 제삼자가 대신 밥을 먹어서 남을 진짜로 배가 부르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한마음으로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거들어 주는 건 모르지만, 자기가 벗어나려면 자기가 자기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 아니, 그건 뗄래야 뗄 수도 없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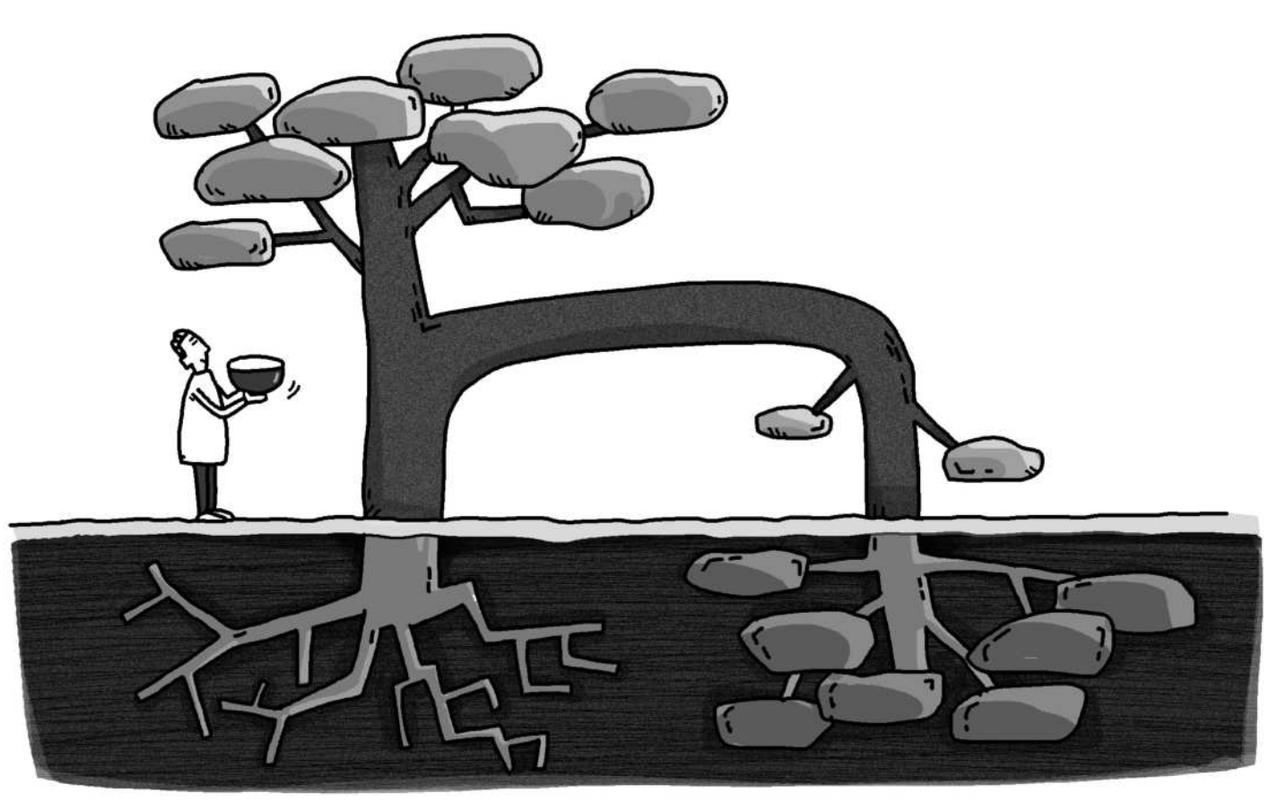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얘기해 드리죠. 거푸 또 할까요? 허허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악업 선업이 자기 영혼에 부착이 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착된 영혼은 바로 영혼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 차원대로, 자기 그릇대로 끼리끼리 만나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동적이거든요, 그게. 즉 말하자면 무쇠는 무쇠 굴에 들어가고 금이면 금 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몸을 빌려,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탄생이 된다 이겁니다.

탄생이 되면 그 악업 선업이, 영혼에 부착이 돼서 따라다니던 게 몸속으로 다 그냥…, 그래서 지금 몸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 몸속에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대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가 한꺼번에 거기 들어 있으면서 차례차례로 그저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입력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믿고, 자꾸 누적되지 않게 그 뿌리에다 그저 닥치는 대로 넣으세요. 부처님이 닥쳐도 '둘이 아니다.' 하고 넣고, 그저 어떤 게 닥쳐오더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곤 다 그냥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새로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간지옥도 무너진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새 그릇에 담기면서 그릇이 비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새로이 넣는 것이 현실에 나오고, 현실로 나오면 즐거움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나게 하는 놈도 그놈이니까 안 나게 하는 놈도 그놈이죠. 매사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다복할 수 있고, 진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을지 관할지 고민돼요

질문 저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할지 관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지요. 이런 저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 마디 일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데 말입니다, '약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슨, 맡긴다 안 맡긴다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하누?' 하고 그냥 그럴 테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모두 작용을 해서 고쳐요. 자기가 형성시킨 기계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그 작업장의 기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니까 작업을 해서 빨리 고쳐 내놓죠. 그러나 약을 먹는다 뭘 한다 하면 통신이 되지를 않아요. 통신이 되지를 않아서 캄캄하니까 병원에도 가야 하고…. 남을 믿고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만약에 이 도리를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거나 똑같이 행한다. 그런데 벌써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는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 이만하면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근본 자리에서 생각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실해서 약을 먹어도 밥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이 모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고" 이 소립니다. 일을 해도 하는 사이 없이 일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도 잡아먹은 사이가 없이 잡아먹고, 이럴 줄 알아야 소 무명을 거둘 줄 알고 소를 환토를 시켜서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약만 찾는다고 한다면 물질로다가 치우쳐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 생각을 해 보세요. 형성시킨 것도 안에서 형성시켰고, 지금 작용을 하고 나가는 것도 안에서 작용을 하고 나가고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데, 한쪽만 굳어져도 육신이 쓰러지고 송장이 되는데 딴 데로 자꾸 마음을 둬 보세요, 어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해 놓고 약을 먹고 이래도 못 믿으니까 통신이 되질 않는 때가 많은데….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약이 약이 아니고 그냥 영양으로써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밥도 약이 아닙니까? 밥을 약이라고 안 먹습니까? 밥은 항상 먹는 거니까 그냥 그저 밥이다 하고는 약이란 소리는 안 하죠, 영. 그런데 그것도 약이에요. 먹어야 사니까요. 물도 약이고 모두가 약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약이 아니고 이거는 약입니까? 내가 몸에 좋아서 먹는다면 바로 그것도 약 아닌 약이죠. 그게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마음으로, '아이구, 내가

☞ 22면으로 계속



내 마음의 주인, 그 자체의 근본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약을 먹으면 안 낫겠지. 약을 먹으면 뭐, 더하겠지. 무슨 이거를 이럭하면 안 되지, 되지.' 그냥 논란이 벌어지면서….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인공 자기 뿌리예요. 잘되든지 못되든지,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뿌리예요. 자기 영원한 뿌리, 불씨 말입니다. "나는 주인공을 찾아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은 벌써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형성된 자체가 바로 주인공 때문이 아닙니까? 소가 있으니까 달구지가 있듯이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달구지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마음이 지옥입니다

질문 얼마 전까지 자영업을 가까스로 운영하다가 결국은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살 의욕도 없고 마음은 정말 지옥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맣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당 지옥이 따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사흘 이내로,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게끔 임신이 되는데, 사람에게만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주어집니다.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짐승의 모습으로 옷을 입었다고 할 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 봐도 짐승의 소리로만 듣지 사람의 소리로는 안 듣습니다. 그럴 때 슬픔이라는 것은 말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철두철미하니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아까가 과거고 어저께가 과거고, 이 시간 후가 미래니까 내일도 미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생각을 잘하는 대로, 행동을 잘하는 대로, 말을 잘하는 대로 내일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 속에서 헤맨다 하더라도 그 긍지만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 그 자체의 근본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하고 물러서서는 아니 되지요. 어떤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맷돌에 심봉을 꼭 끼워 놓고 있으면 어떠한 물건이든지 거기 들어가서 갈려 나옵니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 재생이 돼서 나오구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불바퀴와도 같고 용광로와도 같고 자가발전소와도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포함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장하다, 어떤 게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중하다고 하는 말을 항상 해 드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 마음 자체가 그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데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 마디,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자체가 말은 간단하지만 행은 간단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아주 단호히, 행도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종교고 불법이고 부처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法身)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입니다.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그냥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 않고, 지나간 일도 걱정 않고, 지금 현재 생각을 잘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 어떠한 거든지 재료로 삼고 근본 자리에 일임하면서
>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 서슴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고 실험하고 참구하라.
> 그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왜 못 믿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 고 철저하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자기로부터 세상이 벌어진 거고 자기로부터 종교가 생긴 거고 자기로부터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주어진 거지, 남이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해서 잘 꾸려 나가는 그런 능력이, 심력이 자기로부터 그대로 주어져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수화풍이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광력이나 자력, 또는 전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에 의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병고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회사를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상업을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장사를 할 때는 육안으로나 심안으로나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잘 챙겨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며 거기에 맞는 어떠한 장사를 해야 좋겠느냐, 또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남의 돈을 얻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남는다 하더라도 남의 돈으로만 시작을 한다면 이것저것 갚고 나면 본전이 밑져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되죠?

또 한 가지는 장소 문제입니다. 그 물건하고 장소하고 맞춰야 하는데 사람이 얼마만큼 쓸 수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라고 해서 눈, 귀, 육근(六根)이 모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육경(六境)과 육식(六識)을 다 종합해서 가지고 있으니만큼 그것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겉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잘 잡아 놓고, 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인은 바로 너밖에 없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는 이 도리가 그대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대로 중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시작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첫째,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만이 그것이 참선이자 좌선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마음조차 편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다 편안치 못합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말입니다. 내 마음 쓰는 대로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가져오고, 망하게 되면 그냥 물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캠핑 나왔는데, 다 무너지고 도둑을 맞고 걸머진 거를 다 집어 갔어도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법이 있죠.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도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허허 웃을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아둥바둥하고, '이건 다 넘어갔으니까 다 죽었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대로 가정이 불안하고, 헤어지게 되고 정말 죽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공부, 즉 말하자면 어떠한 거든지 재료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하면서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떠한 용도든지 서슴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참구하라. 이것이 바로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과거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공(空)해서 화해서 돌아가는,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이 이치를 모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재료가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 됩니다. 각자에게 마음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 됩니다. 늙었든 젊었든, 옷 갈아입듯이 우리는 되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뿐이지 무슨 지옥이 따로 있어서 데려다 가둬 놓는 것도 아니요, 천당이 있어서 데려다가 그 천당에서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스럽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자유대권을 가질 때 바로 자유인이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천당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게 되죠. 자기의 기술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듯이 말입니다. 탤런트들이 나와서 배역을 맡을 때도 자기의 재능대로 배역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가난하게 쓰고 행동을 가난하게 하고, 또는 가난하고 속 좁게 말을 해서 넓게 살지 못한다면,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냥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찰나에 둘러볼 수도 있을 것을, 그냥 온통 가난하게 써서 요 독 안에서 나가질 못하죠. 마음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더 세상을 가난하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넓게, 나 아님이 없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하나로 굴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심봉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 심봉 자체가 된다면 돌아가는 이치를 다 그 능력으로써 보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거는 시시해서요, 그런 이론적인 거를 말하고 싶질 않아요. 지금 현실에 중요한 것은 실천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꿰뚫어 안다 하더라도 그건 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발자국 딛고서 흉내 내는 거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한 발 딛고 한 발 옮겨 보는 것, 그것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채 물리가 터지질 못하고 넓질 못해서 내 마음이 내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항상 애고에, 병고에, 유전성 또는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는 쩔쩔쩔쩔 매고, 그냥 아무리 말을 해 드려도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아무리 말을 해드려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은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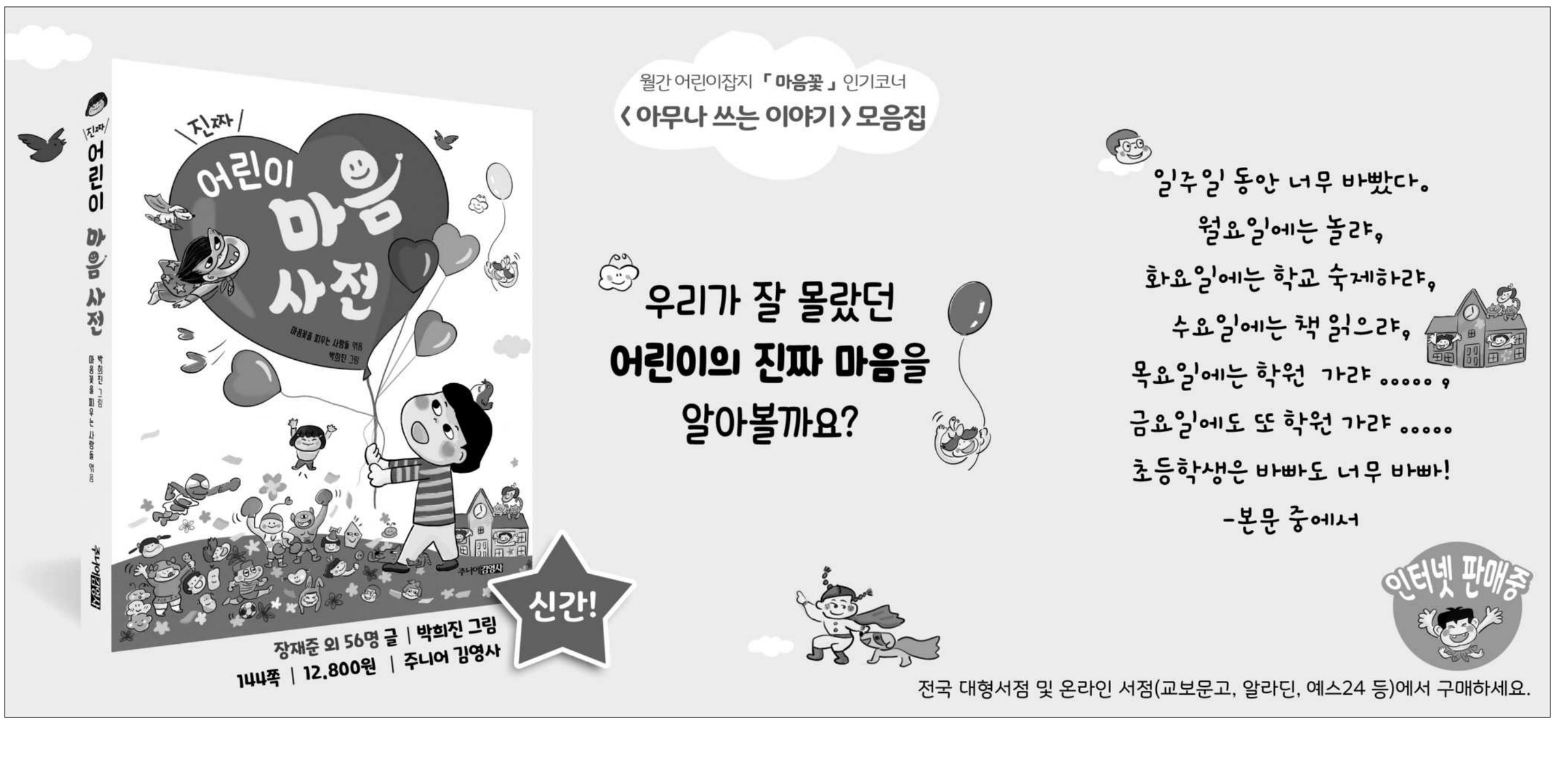
조상들도 나를 통해 공부를…

질문 조상들이나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나를 통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내면의 주인공 자리는 우리가 볼 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귀신 방귀씨를 얻었느냐. 얻었으면 공치기할 공마당은 만들어 놨느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죠. 공부하는 사람 도반들끼리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만 명을 넣었다 하더라도 넣은 사이가 없고 만 명을 여기서 꺼내 내었다 하더라도 꺼내 낸 사이가 없습니다. 병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하면 100이 다 수술을 들어가서 한다고 그래도 하고도 남고 남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고 나가도 나간 사이가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고 넣어도 넣는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조상님들도 공부를 못 해서 그때 그렇게 처참하게 모두 사시고 그렇게 활현을 못 하시는데 '우리 자손들의 몸이 있으니 공부하셔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 조상들이 거기 들어가도 절대로 해가 되거나 뭐가 들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간 사이 없이 들어가 있고 배우는 사이 없이 배우고, 자식이 배우는 대로 배우고 또는 나가도 나가는 사이 없이 활현하시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걸 알게끔 한다면, 자기가 알고 싶다면 꿈으로라도 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그게 좋은 일이니까 그거를 무서워서 쩔쩔매고 해결을 못 해서 쩔쩔매고 이런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의 모습 그거를 다 벗고 나와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돼서도 또 이 살아나오던 습을 다 놔야만이 승천을 하죠. 더불어 같이 사는 공식으로써 우리가 사람 노릇을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 현불 논단 |

언론중재법 개정과 교각살우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與 추진 언론중재법 개정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언론들에게 재갈 물리기"
野 · 언론단체 반발 지속
해외서도 우려 목소리 커

팩트체크 강화 등이 추세
강행처리 중단하고 논의를
가짜뉴스 대책 재수립해야

허위 · 조작 보도(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8월 국회 내 강행처리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8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25일 본회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개정안의 즉각적인 보류를 요구하였다.

기자협회보가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자들 2명 중 1명(50.1%)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찬성은 34.3%에 그쳤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도 위축 효과로 언론의 비판 기능 약화'(83.2%)와 '전략적 봉쇄 소송의 오남용(52.5%)'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오고 있는데, 세계신문협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홈페이지에 "한국은 새로운 '가짜뉴스' 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게재하고 "'가짜뉴스'를 게시한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행법에서 민법상 손해배상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된 규제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허위 · 조작 보도의 정의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해석에 따라 언론 보도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청구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을 허위조작 정보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팩트체트를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석수로 밀어 붙이려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가짜 뉴스, 왜곡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 ·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라는 입법 취지의 실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뿐이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법이 언론의 비판적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은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언론계 등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한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

社說

'불교성전' 전자책, 시장 활성화 계기로

지난 2월 출시된 종단본 〈불교성전〉의 전자책 발매가 8월 9일 이뤄졌다. 사상 첫 종단본 성전의 전자책(e북) 발매 소식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전자책 분야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 일반 사회에서 전자책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불교 전자책 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불교출판업계에서는 이번 〈불교성전〉의 전자책 발매를 기점으로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불교계 문화가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출판계의 중흥이 다시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과제는 많다. 우선 불자들의 전자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이다. 불교 콘텐츠 DB 구축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의 보급도 더디다. 사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종이책 중심의 경전을 활용하고 있다. 킨들과 아이패드 등의 전용단말기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용 전자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전자책 산업은 책이라는 콘텐츠에 소프트웨어와 통신 등의 IT기술이 융합된 영역이다. 미래세대 포교에도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이다. 외부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등 공공 전자책 시장까지 싹트고 있다.

〈불교성전〉의 전자책 발매로 계기로 종이책의 전자화와 DB 구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불교 전자책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한 범종단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불자 개개인이 경전을 읽는 문화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할 것이다.

금강산 옛 순례길 복원을 향한 기대

옛 수행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오롯이 담긴 금강산 옛 순례길이 복원된다는 소식이다. 옛 스님들의 순례길이 복원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이 순례길이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평화의 길이라는 점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고성군과 함께 추진하는 금강산 순례길 복원사업은 남북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현재 단절되고 혼란스러운 남북관계 속 돌파구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무엇보다 그 의미가 남다르며 현실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은 남과 북의 합의를 거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었던 이전의 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금강산을 향하는 남측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 복원해 기본토대를 다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거점지역 중에는 고성 건봉사는 물론, 고성군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제암터도 포함돼 있다. 큰틀에서 조제암터의 복원이 후속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이를 위해 민추본은 고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건봉사와 불교문화재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북측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북한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열망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가 해소될 경우 금강산 순례길 복원사업은 북측과의 또다른 협력사업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강산 옛 순례길 복원이 남북간 경색국면을 해소하는 물꼬가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지탱하는 토대로 나아가길 발원해 본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나무묘법연화경

얼마 전 72시간 탑돌이를 하는 도량에 다녀왔다. 꼬박 3일 동안 탑돌이를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께 참회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힘든 기도의 시간은 '정화'라는 선물을 주는 것 같다.

'나무묘법연화경'을 정근할 때 내 곁을 스쳐간 많은 환우들이 생각났다. 그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특히 한 환자를 떠올렸다. 호스피스 병동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일반병동에서 투병을 하던 중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하게 1인실로 옮겨 그곳에서 임종을 맞게 된 환자였다.

아직 나이가 50대였고 늦게 암을 발견하여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은 아직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안이 벙벙해 보였다. 환자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많이 놀란 표정이었다.

"스님, 저희 남편이 왜 이런 병이 왔을까요? 저희 남편은 〈법화경〉을 두 번이나 사경 할 정도로 신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거사님도 얼마나 놀라셨나요"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도 미



그림 · 최주현

안할 지경이었다. 아직 병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사 분에게 "거사님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도 그저 무표정이었다.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남편을 다독였다. 우선 열 번 "나무묘법연화경"을 정근하였다. 그 순간 거사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비 오듯 쏟아지는 남편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병실을 찾았을 때 간호사로부터 상태가 심각해져 1인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새로 옮긴 1인실 병실을 찾아 들어가려는 찰나, 환자가 이불로 꽁꽁 싸맨 이동용 침대가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임종을 한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장례식장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에 함께 몸을 실었다. 나는 영가의 시신을 향해 '나무묘법연화경' 정근을 시작했고 아내도 흐느끼며 합장하였다. 지하로 연결된 주차장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장례식장도 자리가 없어 다른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려고 대기 중인 구급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무묘법연화경'을 정근하며 그의 극락왕생을 기도했다. 극락왕생을 향해 가는 자리에는 '나무묘법연화경' 좌석이 준비되어 있기를 발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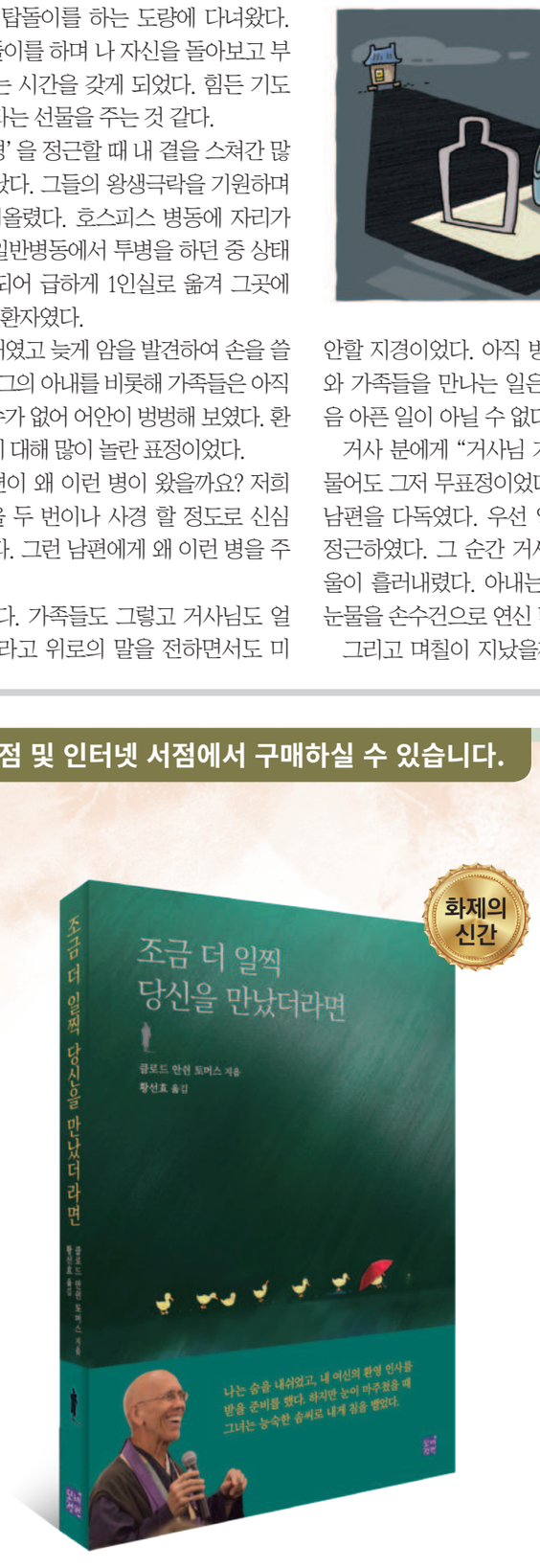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이 사람이 〈법화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는 스님의 기도를 받고 가네요"라고 말하며 합장하였다.

단 두 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환자를 위해 탑을 돌며 '나무묘법연화경'을 걸음걸음에 새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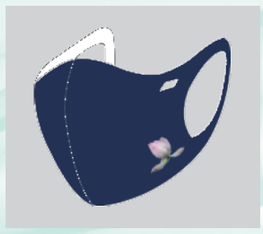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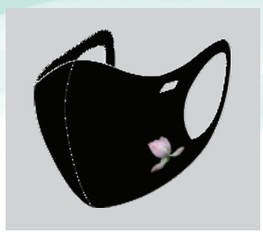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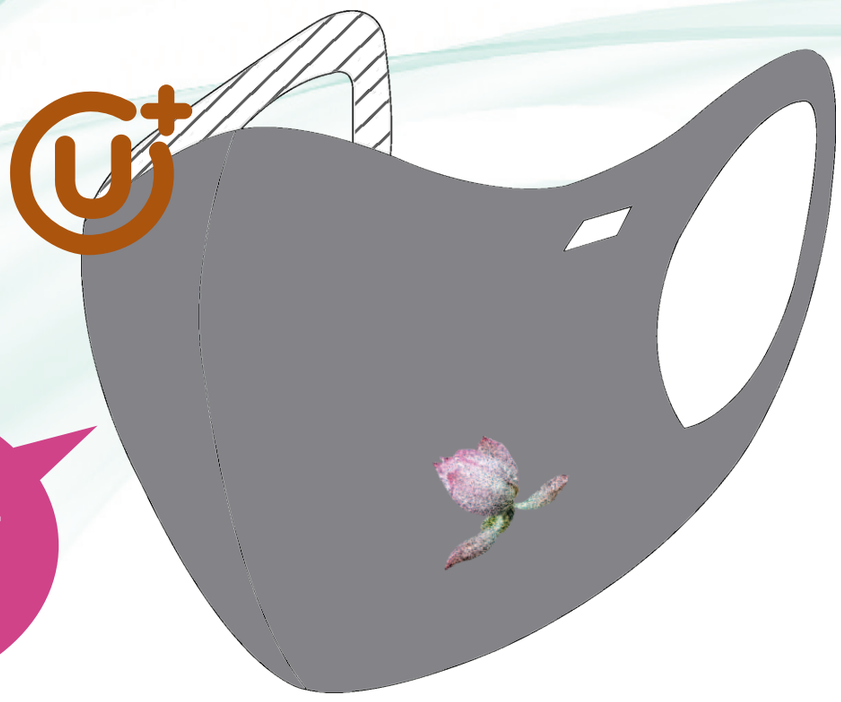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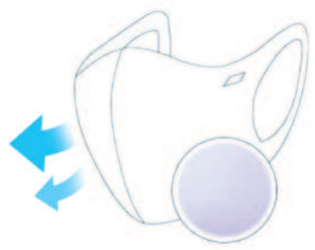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